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6년 9월 16일(월) 제673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박재우 편집장 고병권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과잉진압 규탄 여론 확산

비대위 · 한총련, 집회통해 적극 대응

지난 13일(금) 서울대에서 서총련 소속 대학생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세대 항쟁 진상규명 및 기본권 압살하는 김영삼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2천 5백여명의 전경과 헬기 3대가 동원되며 최루액을 난사해 20여분만에 중단됐다.

지난 13일(금) 서울대에서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총련 진상규명 및 서총련 하반기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총련 연세대 8·15행사와 관련한 한총련의 공식성명서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한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이른바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반대세력 죽이기였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반민주, 반통일의 본모습은 이제 연세대를 넘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에 대한 침탈과 학원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그것을 넘어 사회전반에 마치 유신시대와 같은 아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삼정권의 탄압과 언론의 왜곡보도로 우리의 주장이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영삼 정권의 탄압을 돌파하고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과 행사과정에서 김종희 이경의 죽음에 대한 측면 등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속에서도 더욱 당당하게 김영삼정권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학생들은 규탄대회에 뒤이어 투쟁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30여분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헬기 5대를 동원,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무자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또한 이는 서울대생들의 수업이 채 끝나기전에 벌어진 사태여서 일반 학생들까지 최루액을 뒤집어쓰는 등 학생들의 비난을 받았다.

한편, 지난 14일(토)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3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한총련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집행사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안기부법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비인도적인 과잉진압 반대 및 한총련 진압과정에서 성추행한 전경을 고발하자는 등 정권의 도덕성의 회복을 촉구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이 문민 정부 초기에는 허가제였던 집회를 집시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의 악행을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까지도 침해하려는 현정권을 비난하며 선조들이 피땀흘려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장 주위에는 사복 경찰 300여명과 전경 2개부대들이 배치됐으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일일이 검문검색을 하는 등 삼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집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으며 경찰 측은 집회 후 평화 행진을 하려는 시민들을 불허했다.

염혜진 기자

빈의자

1996년 민주주의

▲지난 5일 필자의 아침잠을 깨웠던 라디오 멘트 하나.

프랑스 수백명의 농민들이 소 30마리를 몰고 시골마을에서부터 8박 9일동안 거리행진을 했단다. 이유인 즉,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광우병 파동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

기나긴 행군 끝에 9월 4일 농민들은 파리에 입성했고 소 30마리를 에펠탑에 매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농민 대표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프랑스 대통령 자크시라크는 이 면담에 즉각 응했고, 그 자리에서 광우병을 비롯한 프랑스의 농업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음은 불보듯 뻔했다는 것.

이야기의 요지는 대충 이렇다. 필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두 번의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의 거리행진이 경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농민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이 그리 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깐, 물밀 듯 필자의 감정이 소리쳤던 건 바로 '부러움'이었다.

▲얼마전 중국산 식용쌀 44만섬이 국내 상륙했다. 코앞에서 번뜩이고 있는 수입개방의 칼날이 농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목줄을 언제 끊을지 모르는, 우리의 민족생존권이 '풍전등화'의 모습으로 떨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은 그날, 우리의 농민들은 거리행진을 비롯한 집회에 불허조치 받았다. 며칠 뒤 청와대 근처로 가던 농민 35명이 연행됐고 농민을 연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 하늘에 총알이 날았다.

▲199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렇다. 생존권의 외침들이 총기속에 신음하고 있다. 올바른 청년들의 외침이 모인 곳은 거대한 헬기가 뿜어내는 빨간 최루액으로 뒤범벅되는 세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은 총살감이고 폭주족도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는 세상이다.

1996년 '공권력'이란 미명하에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어디에선가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일방적으로 시민이 행할 수 있는 무력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시민들이, 농민들이,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할 때 공권력은 땐주먹으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공권력이 한단계 아래에서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국민들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이라는 말일게다.

그런 의미에서 1996년 '공권력'은 분명 죽어가고 있다.

곽근영

양캠, 2학기 힘찬 전진 시작

서울 전학대회 18일, 용인 20일 정기학생총회

○… 서울캠퍼스 제 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오는 18일(수) 대학원 소강당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

민주납부를 비롯한 2학기 학원자주화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될 전학대회는 △상반기 평가 △회칙개정(언론협의회 중앙운영위원 지위 획득, 선거 시행세칙 부분 개정) △2학기 학원자주화 투쟁 방향 설정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학대회 부의장 나인우(동양·이란4)부총학생회장은 "2년을 맞는 전학대회가 단위의 준비활성화로 최고의결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한다"며 "힘있는 2학기 투쟁을 준비하자"고 대의원들의 주체적인 참가를 권고했다.

○… "천이 함께하는 사람사랑, 학원사랑 공동체를 위한 힘모으기"의 장이 될 용인캠퍼스 정기학생총회가 오는 20일(금) 오후 4시 노천극장에서 개최된다.

1부 총회에서는 △1학기·방중 사업보고 △예·결산 보고 △2학기 사업계획 보고와 학원자주화승리 결의 △세민전 성공개최 결의 △공안탄압 보고·분쇄결의 △민족수해 지원 추진본부 발족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학생총회를 준비하는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고희철(인문·철학 4)군은 "지금까지 정기총회의 모습은 학생회 간부의 일방적인 사업보고, '문화공연이 괜찮다'식의 한탕주의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새 형의 정기총회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부

연대투쟁으로 뇌사중이던 김하영양 사망

이번 연세대 통일투쟁에 참가했던 김하영(영남대 문화인류학 3)양이 뇌사상태 26일째 되는 지난 9일(월) 오후 6시 40분에 끝내 사망했다.

원래 선천성 천식이 있던 김양은 김영삼정권의 살인적 탄압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음식도 먹지 못하다가 지난 8월 14일 쓰러졌다. 경찰측은 "김양이 삶은 계란을 먹다 기도가 막혀 그런 것이다"라는 발표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영남대에서는 각급 학교에 보낸 조문서에서 "김양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정권의 광폭한 탄압이 예상됨에도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것이다"라며 김양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정희 기자

본교 김재규군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돼

지난 11일(수) 저녁 본교 김재규(동구·체코어, 95년 졸)군이 서울역부근에서 안기부요원에게 불법연행됐다. 김군은 현재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나정환(동구·체코어4)군은 "안기부는 학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학원을 조작사건, 고문 등 과거 독재의 유습으로부터 지켜내자"고 말했다.

한편 김군은 94년도 동구어대 학생회장 겸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면안내

학부제 문제, 이렇게 풀자 … 3면
가시화된 용인캠퍼스 학부제 투쟁 각 단대별 투쟁방향을 알아본다.

용인캠퍼스 식당문제 …… 6면
"새련된 식당에 맛있는 음식, 게다가 가깝기까지 하니!"
용인캠퍼스 식당들의 변화상

언론의 비리는 인사로부터 …… 9면
언론사의 구조적 모순 심층보도

대학교육의 희망찾기
대종평, 무엇이 문제인가②
시행과정 …… 10면

제1회 대학마당극 한마당 … 7면
마당극이 무언지 진짜 알고싶은 사람, 연세대로 모여라!

"그대가 머물어 세상을 일구어 가는곳, 외대학보입니다"

'외대학보사' 지난 6개월동안 몸으로 느끼며 가슴으로 배워 온 곳이다. 처음에는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시작된 것이 이제는 나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면의 신문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나와 처음으로 학보를 펴보는 순간의 기쁨, 기사의 마지막에 선명히 찍힌 '000기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볼 때의 기쁨은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1학기 초 학보사에 지원한 이유는 소속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함께 하면서 나도 이 외대, 구리고 한 과의 구성원이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필요성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가 없어도 대학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동아리를 찾아보았지만 진정한 나의 속마음을 털어 놓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다 찾게 된 곳이 이 곳 외대학보사이고 아직도 나의 선택에 대해선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나도 수습의 딱지를 떼고 정기자가 되었다. 기사도 쓰고 제법 진지한 고민도 한다. 외대학보사에 들어오라는 강요는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도 않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내 자신이 결정해서, 외대학보사에 지원을 했고 현재의 위치에 있다.

모집대상 : 96학번
모집부문 : 대학.사회.문화.사진.만화.광고부
모집전형 : 논술, 자기소개서 및 면접

수습기자 모집

모집기간 : 9월20일(금)까지
문 의 : 학생회관 2층 학보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4183
용인 0355-30-4112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 설

외국학 발전의 방향

국책대학 선정 및 외국학종합센터의 운영, 그리고 교과과정 개정 등 문제와 관련하여 학내의 관심이 지역학 또는 외국학 방면에 쏠리고 있다. 외대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니만치 열려진 논의를 벌여 보다 근본적인 성격 및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서 논의의 시발을 위한 차원에서 몇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외대의 이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말 명칭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인 우리대학의 영어이름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이다. 그대로 옮기면 한국외국학대학이 된다. 외대의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 사이의 이러한 차이 가운데에는 개교 이래 외대가 만들어온 역사와 전통, 외대 미래의 위상과 관련된 깊은 뜻이 숨겨 있지 않나 생각된다. 미래의 외대는 단순히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영어 이름에 걸맞게 외국학을 연구, 교육하는 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비젼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지역학'이란 말은 정확히 말해서 '외국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말이다. 우리 외대에서 연구하는 지역학은 단순히 '지역학'이 아니라 '해외지역학' 또는 '외국지역학'일 것이고, 이런 의미를 담기에는 '외국학'이라는 말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굳이 '지역학'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이다.

외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어문계 단과대학 시절의 관행과 기준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 할 까이다. 특히 교육개방이라는 부정적 조건과 국책대학 선정 등의 긍정적 가능성이 동시에 내다보이는 현 시점에서 외대의 정체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합의가 없이는 외대의 단합된 힘을 동원하고 그 힘에 근거해 학교발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동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짚어 보아야 하겠다.

첫째로 외대에서 연구하는 지역학이 외국학이고 이것이 외대 학문의 기본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해오던 외국어문학 교육은 여전히 중심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지역의 언어와 그 언어로 된 문서들을 읽을 수 없는 자가 진정한 외국학도로 행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외대의 지역학이 외국어문학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지역학은 외국여행 안내 책자나 신문사의 외신 기사가 제공하는 지역학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둘째로, 외대의 외국학에 대한 강조가 어문계의 성격을 점차로 변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의 정체성을 높이도록 할 요량이라면, 비어문계의 성격변화도 필수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특정 외국어를 어떤 식으로건 4년간 접해 본 학생은 최소한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감각과 지식을 갖출 수 있겠으나, 주로 미국 등 특정 국가의 학문을 보편화시킨 사회과학만을 배운 학생들은 그 학문의 토양을 이루고 있는 해당 강대국에 대한 지역학적 감각과 지식이 말할 것 없고 학생들 자신이 발딛고 사는 땅의 현실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부정확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대의 경제학과는 경제원론에서 출발하되 외국경제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하고, 외대의 정외과라면 원론 외에 주로 외국 정치와 외교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론의 일반화도 이처럼 외국실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국학적 사회과학을 위해서는 외국어문학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함은 당위일 것이다.

셋째로, 외대의 외국학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보를 축적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대학의 학문이고자 한다면 외국학을 위한 기초 학문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외국학을 한다면서 지리학이 없고, 외국문학을 이해한다면서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이 없다면 그러한 외국학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결국 외대가 '외국어대학'에서 '외국학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외대에서 가르치는 지역학은 다양한 외국어로 접근해야 한다. 외대의 외국학은 외대가 실시하고 있는 27개 어문학교육에 바탕하되 고도한 유기적 성과를 내므로써 국내에서 독자적인 색깔을 확보하고 독보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훕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대학언론탄압 중지를…

지난 5일 서울신문에서 검찰이 대학신문을 내사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은 이후로 대학언론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대학신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교의 외대학보는 예전부터 이런 경험을 해왔으나 지금 당장은 별 마찰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울시립대 신문은 주간교수의 요구에 학생들이 일정정도 양보를 하며 신문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한총련 기사는 절대로 실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배포를 금지했다. 숙명여대, 연세대도 배포중지를 당한 실정이다. 이외에 경기대는 한총련 기사가 잘려나간 자리가 텅빈 벽돌신문이 발행되었다. 전국에 약 30여개의 대학신문이 배포, 제작중지를 당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모두 크고 작은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학교측의 주장은 대부분 공안정국에서 괜히 잘못 보이면 안된다는 논리이며 어떤 학교는 조금 쉬다가 조용해질 때 다시 신문을 내자고 유혹하기도 한다고 한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탄압은 곧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도언론이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대학신문마저 그래서는 안된다. 대학신문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진실을 알릴 대중적 매체가 없는 학생들과 서민들의 정론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제도언론의 횡포속에 미력한 힘이나마 언제나 학생·민중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학보를 탄압하는 것은 우리 대학인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 사회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안탄압의 연장선에서 '연세대 통일투쟁'의 진실을 발빠르게 알리고 있는 대학신문의 발을 묶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학신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자각하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하겠다.

김지현(동양·일본어 2)

학교는 지금 폭풍전야

지난 11일 94년 동구어대 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김재규(체코 88학번)군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용인캠퍼스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어느 일반 학생이라면 이러한 이상 증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도언론의 보도에서 보여준 학내 기숙금지와 자정이후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학생회 사업을 하는 학생들속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심심찮게 용인캠퍼스에 대한 경찰의 재진입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무시무시한 조직사건이 뒤따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부산대와 서울대에서는 조직사건으로 여러명의 학생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지라 이러한 추측은 일파만파로 학원분위기와 학생회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암흑이라는 단어로 귀결되었던 소위 군사정권시절도 아닌데 학원에 경찰이 들어와 수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학생회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소문만은 아닐것이다. 이번 8·15 한총련 통일행사에 참여했다고 용인캠퍼스에서는 3명의 학생이 구속되었고, 그들을 면회하고 온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경찰쪽에서는 그들을 조사하면서 일정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를 끼워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겼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점들은 이미 여름방학때부터 징후를 보여왔다. 학원침탈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학생회 간부들이 학교에서 기숙을 해가며 학원을 지켜야 했고, 학교 앞 모현에서는 경찰은 탐문은 물론 지나가는 학생을 잡고 학내상황을 꼬치꼬치 캐 물었고 급기야는 학원을 침탈하여 학생회관 3층 다수의 동아리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구 헤쳐 놓지 않았던가

이것이 정녕 21세기를 향해가는 한국의 모습이고, 문민정부라는 허울이라면 청년학생은 단호히 나설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14일의 구속자 후원회 밤을 잠시 생각해 본다. 3명 모두가 왕산을 사랑하고 가꿔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불철주야 뛰어오던 우리 곁의 친구들이다.

저조한 참여속에 후원회 밤이 이뤄졌으나 그 숫자에도 고마움을 표하던 구속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떠올려 본다. 아들의 이름이 지명되거나 아들에 대한 회상부분이 나오면 눈시울을 붉혀야 했고, 이야기가 끝나면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쳐주셨다. 그 분들은 우리의 여느 부모님과 다르지 않았다. 자식이 다칠까봐 공부만 하라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말이다.

이제 그분들을 위로할 수있는 최소의 노력은 오직 학생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일 것이다. 그들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매몰돼 버릴 때 혹시 아는가. 또다시 학원에 들어온 경찰에 의해 잠을 자다가 끌려가 구속에 이르러 버리는 것이 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한다.

지금 학원은 전쟁중이다. 그것도 스스로를 정통성을 완비한 정부와의 싸움이다. 우리에게 있어 강력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무일의 무기는 오직 단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나 개인부터 학원을 지켜나가는 소명의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영환(동학·아랍어 4)

극성스런 음주문화

2학기 개강을 한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서는 학내 곳곳에는 비슷한 문구의 대자보를 볼 수 있다. 'ㅇㅇ동문회' 'ㅇㅇ과 개강파티' 등의 문구가 실린 대자보이다. 이 외에도 개강 쯤에는 여러가지 개강 모임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모임들은 방학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와 선후배를 만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런 모임 중에는 가끔 부끄러운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문동 교문 앞에서는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귀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광경을 본의 아니게 목격했을 것이다. 특히 동문회가 많이 있는 금요일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러 대는 사람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번은 학내에서 인근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며 하는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런 말들을 선배들에게 얘기하면 선배들은 매학기 되풀이 되는 문제이고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니냐며 말한다. 그러나 일학년인 나로서는 진부하지 않고 놀랍다. 그리고 밤늦게 공부하며 집에 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기성세대들에게는 더욱 놀라울 것이다.

이런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이것도 대학문화라며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학내에서 음주와 소란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무단횡단, 고성방가는 불법인 것을 안다. 매학기마다 되풀이 되는 진부한 문제라고 넘긴다면 매학기 반복되는 학내문제도 넘겨버려야 할 것이다. 캠퍼스 내에서 있는 소란행위를 볼 때마다 이문동 캠퍼스의 후문과 도서관 뒷문의 '인근주민 출입제한 문구'를 없애버리고 싶다.

김현수(사회과학계열 1)

새로운 것만이 세상을 바꾼다. 전·노 사면만이 대선을 확고히 한다

-새로운 세대 COOL YS-

백지 대자보

주제: 항간에 떠돌고 있는 전·노 사면설에 대해

전 노(NO)예요.

-어느 장기 양심수가-

'사면'시키면 '사면초가'는 각오해야 할 걸.

-초가집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학우-

항간에 떠돌고 있는 사면설은 한강에 빠뜨려 버려라

-뱃사공-

그럼 공평하게 지금 죄수들중에서 2000명 이하로 죽인 사람들은 전부 사면해라

-민주 살인범-

사면되어 출감하는 그날로 사수대 풀어서 때려죽일껴!

-해운대 피바다 95-

사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94 얼떨이-

박창희 교수님도 좀

-도깨비

아, 그러게 첨부터 역사에 맡기자니깐

-머리 벗겨진 사람-

이게 웬 잠자다 빠떼루 당할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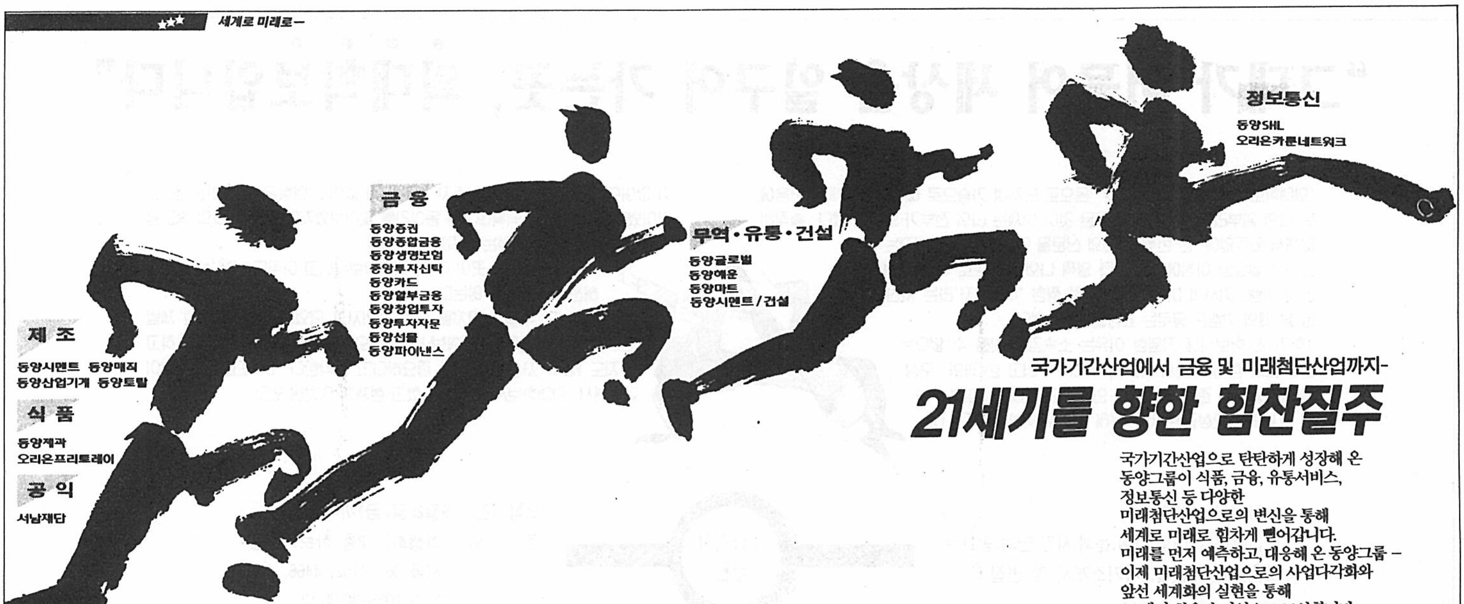
-윤윤 xx-

어차피 03공화국의 각본이므로 상관없다

-소설광-

독 자 만 평

세계로 미래로—



제조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산업기계 동양토탈
식품
동양제과
오리온프리토레이
공익
서남재단
금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동양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할부금융
동양창업투자
동양투자자문
동양선물
동양파이낸스
무역·유통·건설
동양글로벌
동양해운
동양마트
동양시멘트/건설
정보통신
동양SHL
오리온카른네트워크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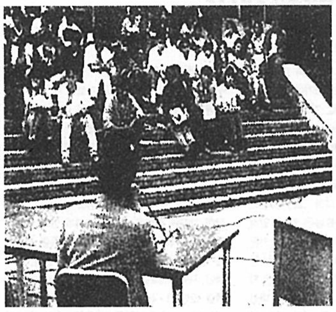
국가기간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동양그룹

용인캠퍼스 학부제 문제 이렇게 푼다

'전공선택 자율권 보장돼야 한다'

자연대 · 경상대, 소학부제 전환 추진



작년 10월 공개적인 여론수렴 없이 도입된 학부제. 대학당국의 졸속행정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대응방안 모색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개강이후 용인캠퍼스 학부제 투쟁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론수렴이 배제된 갑작스런 도입 △신입생들의 제 2의 입시열풍 △과학생회 붕괴 △대학공동체문화 파괴 등 전국대학의 공통분모로 불거졌던 학부제가 시행 1학기를 넘어서면서 졸속행정의 폐단 속출과 신입생들의 전공선택시기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신입생들이 가장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성적순으로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부분이다. 바로 학부제는 '제2의 입시'를 낳는다는 대목.

이런 상황에 따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전공선택의 완전보장'을 학부제 문제의 핵심요구사안으로 쥐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학칙개정' 투쟁으로 직결된다. 전공인원비율이 교육부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세부사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학칙의 전공인원 비율을 없애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 · 사학 4)군은 "현재 전공선택의 보장 문제는 교무처장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며 "이 투쟁은 분명 승리할 수 있다"고 향후 투쟁을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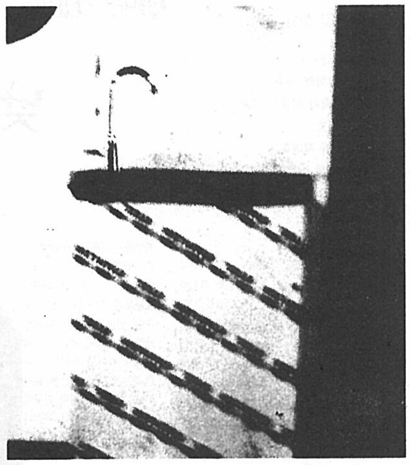
이런 총학생회의 큰 투쟁의 틀 속에서 학부제는 실시 단대별로 대두되는 문제점의 심각성에서 각각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대안도 각 단대별로 조금씩 다르다. 공대의 경우 전자공학과와 제어계측공학과가 통합하여 전자제어공학부,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가 합쳐져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산업공학과가 산업공학부로 전환된 이른바 '소학부제'가 도입됐었다. 이 소학부제는 학문적 연관성이 많고 한과로 몰릴 위험이 없는 공대에게는 제격인 셈이다. 단지 학부제로 인한 폐단을 꼽으라면 과학생회 운영상의 문제다. 그러나 인문대의 경우는 우선 과간의 학문적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다가 언어학과의 경우 전공학문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폐과의 위험조차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문대는 전공선택권의 완전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폐과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전공인원 비율 150%라는 대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1학년 과대표를 중심으로 1학년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부제 연구소위를 꾸린 자연대는 소학부제로의 전환을 첫 번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문의 연관성이 비교적 높은 수학과와 통계학과, 물리학과와 화학과, 환경학과, 미생물학과 이렇게 4개 학부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연대 교수측에서는 환경학과와 미생물학과를 통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또한 자연대학생회는 전공선택권에 있어 완전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150%를 마지노선으로 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한편 학부제가 아닌 계열제를 도입한 경상대의 경우, 전공선택인원이 과정원이라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해야 하는 투쟁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경상대는 일차적으로 계열제 폐지, 이차적으로는 소학부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차적인 대안은 교육부의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한 전공선택권의 완전보장이 요원한 상태에서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아래 나온 것이다. 또한 이차적으로 나온 대안은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를 통합하고 경영정보학과를 학부로 전환하는 이른바 소학부제 실시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도입된 학부제. 이제는 곪았던 상처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제시를 시급히 요구받고 있다.

이에 오는 18일(수)에 열린 학부제 대토론회는 이후 투쟁의 향방을 가르는 동시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 간부들의 노력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곽근영 기자



지하 200m 천연 암반수(?)

용인캠퍼스의 각 건물마다 설치된 식수대는 언제부터인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다. 대학당국도 미생물이 쉽게 배양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식수대는 식수대의 역할보다는 세면대로서 더 애용되고 있다.. 김학영 기자

'민주납부 승리위한 결의대회' 열려

민주납부관련 공청회 진행돼

학교법인 전입금 확충과 제도적 학생참여보장을 위한 애국외대 결의대회가 지난 12일(목) 1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4시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외대노래창작단의 '속도전'이란 개사곡과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협상보고 △외대발전 범 외대인 추진위원회 구성 △민주납부 관련 공청회 △민납투쟁 결의서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나인우(동양 · 이란어 4)군은 "외대발전 범외대인 추진위원회는 교수 · 학생 · 직원 · 학부모 · 동문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의체로서 외대발전을 위한 모든 기구를 총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제기배경을 밝혔다.

집회가 끝난후 40여분간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민주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 민주납부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 민주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납가와 비민납가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납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도서관 대출, 수업출석 확인시 전원거부 등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법인 전입금 확충과 관련 재단을 상대로 한 협상은

= 학교측과의 협상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장들이 대답을 회피한다. 이후 협상에선 [illegible] 출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illegible]

- 학교측의 [illegible]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illegible]

[illegible] 기자

변화된 실용영어의 문제점

"변화가 또다른 문제점 낳았다"

값비싼 교재비 · 복학생 소외감 부추겨

96년 교양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인 실용영어가 2학기 들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재의 변화 △듣기의 강화 △읽기영역의 보강 △성적 반영비율의 변화 등 1학기 때보다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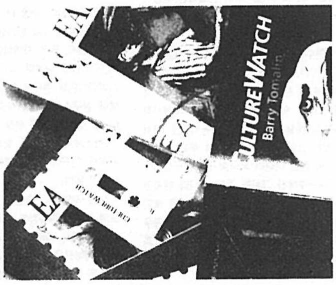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실용영어 담당 차경애 교수는 "1학기 때 너무 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난이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낮은 학생참여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예습을 강조하겠다"고 앞으로의 실용영어 운영방침을 밝혔다.

1학기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실용영어는 수강생들에게 불만이 아닐 수 없다.

교재의 난이도 선정에 있어 상위권층의 일부 학생들에게 맞추어 조정을 한관계로 평균적인 난이도 또한 올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나 학구열보다는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교재의 가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ast West3, Culture Watch 이 두 권의 책과 테이프의 가격을 모두 사게 되면 거의 3만원에 가까운 돈의 지출이 있게 된다. 실용영어를 수강하는 복학생 이원영(서양 · 독일어 4)군은 "교양과목에 드는 교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1학기때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이 남았는데도 무리하게 왜 교재를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복학생 수강제한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과거 교양영어 미수강 복학생들이 수강해야만 하는 실용영어는 복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정원을 구실삼아 한 반에 단지 2명의 복학생만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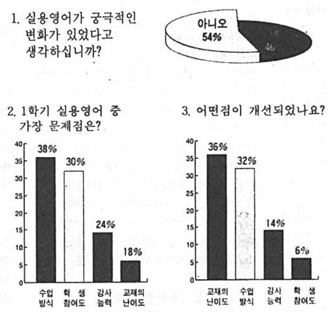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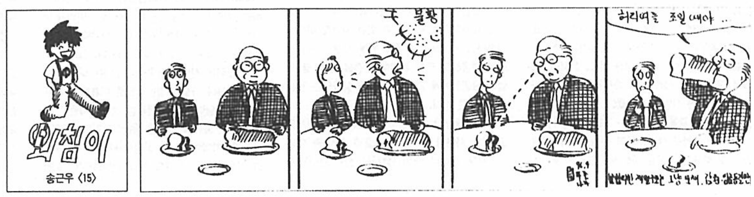
비싼 교재비로 무리를 빚고있는 실용영어 교재들. 대학당국의 제도적장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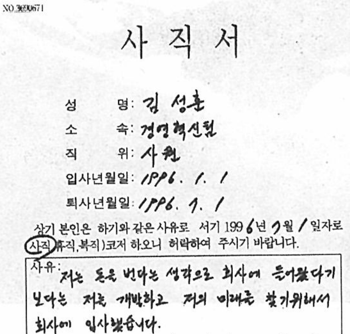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까지는 오랜 연구와 강사 확충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단 바꿔놓고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바꿔간다는 식의 안일한 교육정책에 있다. 대학 당국의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개정 의지가 없다면 실용영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실용(失用)영어가 될 것이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강의를 수강하는 우리 학생인 것이다.

이동훈 기자

〔실용영어 설문조사 그래프〕







NO.3690671

사 직 서

성 명: 김 성훈
소 속: 경영혁신원
직 위: 사원
입사년월일: 1996. 1. 1
퇴사년월일: 1996. 7. 1

상기 본인은 하기와 같은 사유로 서기 1996년 7월 1일자로 사직(휴직,복직)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저는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들어왔다기 보다는 저를 개발하고 저의 미래를 찾기위해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달 안되는 생활이었지만 이회사에서 저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6년 7월 1일
본인 김 성훈

銀龍그룹

아깝다, 좋은 인재!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벌써 그만두다니…

인재들의 능력을 120%개발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삼양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학교에서는 이룰 수 없는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양그룹은 인재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국내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이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동남아 해외연수등의 신입사원교육으로,
외국의 문화, 생활습관, 예술까지 몸에 익히는 Furture Leader교육으로,
1년간 자유롭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해외 유수 대학의 MBA과정 교육으로,
선진경영기법, 신규사업, 국제금융에 대한 Global Manager교육으로-
삼양그룹의 인재를 위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속의 초일류기업 - 삼양그룹은 이미 그 큰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 **섬유부문** • 원사에서 패션까지 수직계열화 추진
 • 세계 5대 폴리에스터 메이커 진입 추진
- **화학 부문**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첨단고분자화학분야 강화
 • 폴리카보네이트, TPA생산능력 확대
- **환경 · 엔지니어링 부문** •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환경사업 강화
 • 플랜트 건설 사업의 중점 추진
- **건강산업 부문** • 세계 최초로 항암제 제네솔의 대량생산 성공
 • 패취제형 개발 및 전문의약회사 설립 추진
- **정보통신 부문** • 인트라넷 구축, 공장자동화 사업, 화상회의 사업
 • 국내 유선방송사업과 미국내 무선 CATV사업

삼양그룹

• 사업영역: 섬유,식품,사료,화성,기계,엔지니어링,의약,정보통신,금융,연구개발,해외사업,육영

글 싣는 순서

1.외대인의 인식
2.국내 지역학의 수준
3.본교지역학의 제도적 문제
4.타대학 탐방
5.학과에서의 지역학
6.대안-지역학 발전을 위한 좌담회

외대인 살길은 · · · 지역학?

낮은 인식 수준 전환 · 학부 과정 개선 절실

전문 연구 기관 설립 - 전문 인력 · 고급 정보 배출해야

기초 지역학이란 · · ·

지역학을 가장 간단히 정의하면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의 연구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에 대한 연구로서 지역학은 기존의 분과학문(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과는 달리 종합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역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지역학이란 분류된 한 지역 또는 국가의 언어,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생각할 때 지역학이 독립된 한 학문으로서의 위상과 효용성을 갖기 위해선 연구방법의 차원에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지역학 연구는 해당 연구지역의 언어습득을 필수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언어를 토대로 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일차적 표현수단인 언어를 앎으로써 그들의 삶의 본질의 이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학은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연구 대상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학의 이러한 연구목표는 자칫 학문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성을 도외시하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지역학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교연구를 이차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기존의 분과학문이 바탕을 두고 있는 서양사회 중심의 이론틀에서 벗어나 동서양의 제반 사회현상의 이해를 도울 일단의 보편적인 이론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지역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를 기본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연구 대상지역의 어떤 한 사회현상은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한 분과학문의 연구로는 사실상 이러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의 유럽에서 진행된 산업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실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한 분과학문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도제관계를 바탕으로 한 종래의 수공업 생산이 임금노동 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생산체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간의 대립이 대표적인 예이다. 새로이 등장한 노사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고찰이 불가결했기에 학제간 연구가 보다 효율적인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다양한 언어교육 활용 · · · 지역학 매카로

이와 같이 연구 대상지역의 언어습득과, 비교연구 및 학제간 연구를 중심 바탕으로 행해지는 지역학은 이미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학문의 효용성의 측면에서 많은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양산된 반면, 현재까지 우리 나라학계에선 사실상 지역학에 대한 인식조차도 미진한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학 연구의 이러한 상황은 가히 우리나라 학문의 후진성의 점도를 넘어 학문의 심각한 공백 또는 위기를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지역학 연구의 전반적인 무지와 무관심에도 본교는 지난 40여년동안 개교이래 학부과정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교육을 실시해왔고 1960년대 이래 지역학 대학원을 설립하여 사실상 국내의 지역학 연구를 선도해왔고 그간 양성된 많은 인재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지금 건설중인 외국학 종합 연구 센터는 고급 인력과 정보 양산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금 외대는 교과과정 개선과 지원확충을 통한 기초 지역학 발전이 필요하다. 사진은 용인캠퍼스에 건설중인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조감도이다.

보다 최근에 본교는 지역학의 이론화 작업과 연구업적의 활성화를 위해 11개의 지역연구소와 11개의 비교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0년 이래 이 연구소들은 다양한 세계지역 연구과제의 수행 및 학술발표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12종의 연구논문집의 발간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교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로서 지역학의 이론연구와 교육을 보다 심화시켜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는 지역학연구의 깊잡이 역할을 수행할 목표로 1998년에 위에서 언급한 지역학 관련 대학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환하여 지역학 전문대학원(가칭)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응용지역학이란 · · ·

지역학 연구를 위한 이론화 작업과 교육을 통해 국내 지역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전문인력의 양성이 기초지역학의 주요목표인 반면, 응용지역학은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학계가 어떤 대상지역에 관한 전문가의 해석이 담긴 고급정보와 연구 대상지역의 제반 사회현상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학 이론을 신속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 정부와 기업체 등에 제공하고 또한 해외에 파견될 정부 및 기업의 요원들에게 지역학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한다.

치열한 국가간 경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과 수입 등 대외교역부분이 이미 국민총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및 기업체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대학이 이들에게 전세계의 최신 산업경제, 통상정보를 자료화해서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학계의 노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파악한 본교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93년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고 95년 12월에 연건평 6천여평의 공사를 착공했으며 97년중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이미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을 선발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전세계 국가에 대한 정치 및 경제동향과 경제환경, 기술정보, 문화, 개별상품의 시장동향 등에 관해 기존 연구소내의 정보와 인공위성, 현지리포터, 인터넷, 각국의 인쇄물, 유럽연합자료센터 등으로부터 새롭게 수집한 연구센터 자체의 세계정보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부, 관계, 산업체들에게 역대상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일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상태이며 97년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의 완공과 함께 이러한 산학협동체제는 보다 성숙된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해외연수 실시 통한 인재양성

해외지역에 대한 현장감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부관 및 기업 종사자들에게 지역학을 연수하는 것 또한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산업기관이 학계보다는 다소 앞서 있는 편이나 사실상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한예로 동남아지역을 전공한 소장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92년에 결성한 동남아지역학연구회는 삼성해외지역연구소와 삼성국제경영전략연구소의 의뢰로 삼성 사내의 동남아지역정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주씩 년 5-6차례에 걸쳐 대상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의 현지언어 구사력의 한계와 현지에 대한 기초지식의 결핍 및 교육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며 따라서 보다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위해선 학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교의 외국어연수원은 1974년 외교활동의 강화와 통상증진을 위하여 공무원과 무역회사 임직원의 외국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으로 개원이래 지금까지 1만여명의 인재를 배출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외국어연수원이 실용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해외파견 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중단기 외국어 연수 및 해외 지역사정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하나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에서는 국내연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연수와 귀국후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완결된 해외지역사정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해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식전환 · 교과과정 개선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차원에서 본교는 여러 측면에서 국내의 타대학과 견주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이 명실상부한 지역학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지역학의 이론연구를 활성화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한 과제는 학내 교수들의 지역학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역사적으로 전통학문들은 새롭거나 혹은 낯선 학문분야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못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분과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신종 학문인 지역학에 대해 연구의 대상과 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가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일천한 역사와 함께 한때 기존 학문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변화하는 시대의 현상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아 현재 학문세계에서 당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된 분과학문들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이미 30여년동안 세계학계에서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성장해온 지역학을 우리학계에서도 이젠 도외시하기보다는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사이 세계화로 개념되는 일련의 세계변화에 부응해 지역학은 다른 국가와 사회의 실체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학문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본교가 명실상부하게 국내 지역학연구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많은 담론을 필요로 하는 지역학이론의 연구에 앞장서야 하며 교내의 지역학 연구소와 비교연구소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연구소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확립은 물론, 왕성한 연구활동을 위해서 연구비의 뒷받침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둘째, 지역학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 현재 본교의 학부 교과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부의 교과과정은 학과에 따라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처음 2년간은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 2년간은 해당지역의 어학을 보다 심도있게 가르치고 그밖에 문화, 정치, 역사, 경제, 사회, 문화를 두루 섭렵하도록 짜여 있다. 또한 언어습득을 위한 과목들은 전공필수로 정한 반면, 대부분의 여타 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습득은 비록 부족한 감은 있으나 그런대로 체계적인 과정을 갖추고 있는 반면 그밖의 과정들은 대부분 체계없이 나열돼 다소 피상적인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학생들에게 두가지 이상의 전공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장에 따라 전공과목 이수의 축소는 본교의 입장에서 볼때 체계적인 언어습득 뿐 아니라 여타 교과목 습득에 있어서도 부실교육이 염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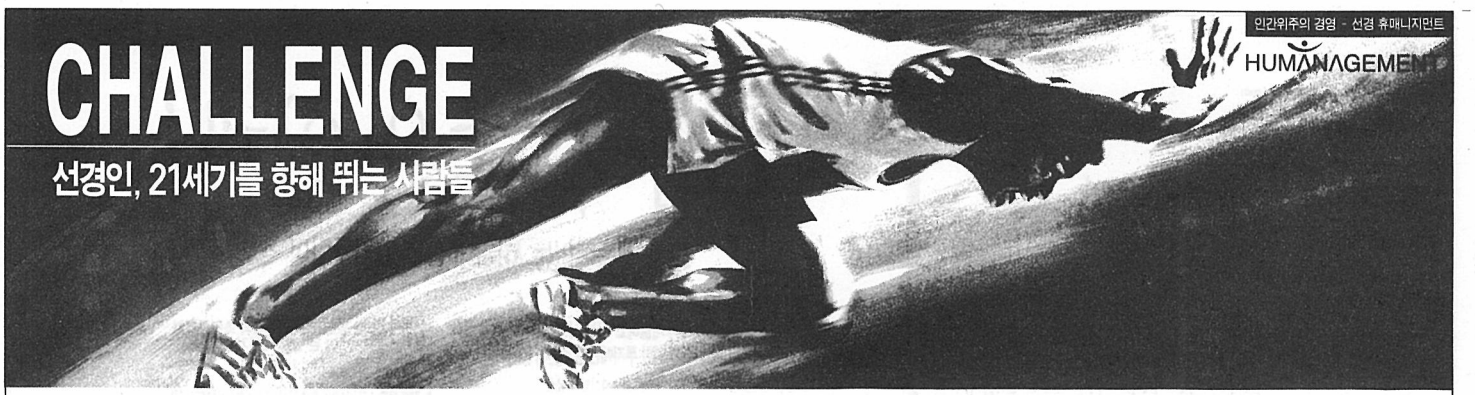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속에서 탄탄한 어학교육을 바탕으로 지역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의 수학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어학습득의 경우 4년 과정에 걸쳐 해당 과목의 체계있는 분산을 통해 전공필수로 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역학교육을 위해선 전공학점 이수의 한계를 감안, 3·4학년 과정에서 각학과에 비교적 심도있는 지역학 과목을 개설하고 대신 이 분야의 기본교육은 1·2학년 교양과목이 담당해 이 과정 또한 필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학 · 어문학 분리 막고 종합적 연구

현재 본교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지역학의 요람이 되도록 하려면 우선 해당 전공지역의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물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 분야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작성할 경우, 특히 사회, 문화 및 역사전공을 담당할 교수를 확보시에 소위 우리 대학의 일반적인 인식인 어문학과 지역학의 2분적인 구분에 억매여 자칫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분과학문으로 어학과 문학의 배제가 우려된다. 언어학의 한 응용분야인 사회언어학과 한나라의 문화읽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학분야는 국내의 타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언어권을 포괄하는 우리 대학의 중요한 자산이며 뿐만아니라 타대학과 견주어 월등한 비교우위와 함께 우리대학의 지역학연구의 분명한 색깔을 확립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학과 어문학을 구분하는 논쟁을 피하고 모두가 우리대학의 장래를 위해 굳게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응용지역학의 측면에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다양한 언어권을 포괄할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성과 지금까지 운영해온 연수프로그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및 법제도 등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수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해외연수의 요람으로 자리하여 21세기에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해 본다.

소 병 국
〈본교 마인어과 교수〉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선경은 지금 새로운 도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70년대 초 '석유에서 섬유까지'의 수직계열화 체계를 천명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경은 결국 해냈고, 종합에너지 · 종합화학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경은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과학, 신소재,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경으로 오십시오.
21세기에 대한 도전의 시간 속으로 오십시오.

선경은 사람을 키우는 땅입니다.

선경에는 인재들의 자기발전 기회가 많습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최고 한달여 동안 실시하는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1년간 해외에 파견, 현지 전문가로 키우는 '파이오니아 포스트', 해외 비즈니스스쿨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 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는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미국 유수의 국제 경영대학원에 개설된 '선경 Thunderbird프로그램', 과장, 차장도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내기업가제도' 등등.
이렇게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는 선경의 21세기를 밝힙니다.

1년, 365일 선경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선경채용상담실에서 연중상시로 입사면담은 물론 지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365일 인터넷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 대학 4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선경에 응시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경채용상담실 : 02/728-0212/0222 FAX : 02/763-4401
Web Homepage : http : //www.sk.co.kr
E-Mail : joinus@mail.sk.co.kr

SUNKYONG 鮮京그룹

성정치 - '결혼'에 대해

'결혼'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환각

안정과 맞바꾼 출산 · 가사노동의 굴레

결혼의 환상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결혼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억압과 소외라는 숙제가 여전히 우리에겐 남아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독신의 미덕이 공개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하려 하고, 결국은 하고야 만다.

무엇이 이렇게 결혼을 살아 있게 만드는가? 가장 먼저 '결혼 경험의 사적화'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나만은 행복할꺼야."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말처럼 어머니가 매맞거나 혹은 자녀들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결혼 경험의 사적화'가 결혼하려는 사람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의 실패가 제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로 비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부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다투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다.

필자 역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속에서 울 수 있는 미덕들-아들태면 사랑과 행복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허상이며 결혼은 단지 억압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결혼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 남성, 아동 모두에게의 억압과 소외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낭만적 사랑에 대해

결혼을 이야기할 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다. "왜 결혼하나?"라는 물음에 정답은 "사랑하니까!"라는 외침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남녀간 사랑의 전통은 원래 혼외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산업 사회 이전에는 한 집안과 다른 집안과의 만남이 결혼을 만들어 내었다.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부르조아 계급은 아들이 직접 아내를 고르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사람과 결혼이 역사상 처음으로 결부되기 시작했다.

결혼이 더 이상 형식적인 강제를 띠고 있지 않은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꾸준히 자발적으로 가부장제 가족을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 '남만적 사랑'이란 것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은 홀로 고고히 떠다니는 천국이 아니다. 이 시대의 사람 속에는 수많은 '불평등한 권력'이 존재한다. '사랑의 노예'라는 자기기만이나, '사랑에 눈먼 장님'이라는 상대방의 이상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랑'이나 '사랑의 과정'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사랑 속에 숨어 있는 '정치성'과 '불평등한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하는 몇 가지 이유

다시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더 살펴보자.

첫째, 결혼을 통해 여성과 아동은 경제적 독립성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육체적인 안전성이 있다.

둘째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여성과 아동들이 가족 단위 속에서는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이 가족은 통합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셋째, 비록 가족이 성적 억압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정된 성의 공급을 보장한다. 게다가 결혼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이라는 추가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의문

이런 결혼과 사람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 제도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을 통해 여성은 출산, 육아, 가사 노동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히스테리화되고, 아동은 나이주의와 강요된 교육에 의해 말라 가고, 남성은 가정 내에서 과도한 경제 의존도로 인해 피폐화된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을 생산해 낸 주범이 결혼만은 아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공범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억압적인 조건을 기초로 한 낡을 대로 낡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의심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결혼으로부터의 소외

이 짧은 글을 마무리하려 하니 몇 가지 환청이 들려 온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라든가, "결혼이 아니라면 도대체 대안은 뭐지?"라는 외침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유토피아적 청사진의 제시가 아니라, 너무나 현저히 드러나는 억압과 소외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글의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성정치 연구 모임, 세상을 향하여〉

생활에서 외대 홈페이지

최근 국내에 불어온 인터넷 열풍으로 인해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본교도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한다. WWW(World Wide Web)가 인터넷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면서 홈페이지란 말도 무척이나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됐다. 홈페이지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www상의 정보가 있는 곳으로이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외국어 대학교의 홈페이지라고 하면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면 된다. 홈페이지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사이트(site)인데 말 그대로 '위치, 장소, 부지'를 뜻한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라는 말은 홈페이지라는 말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FTP(File Transper Protocol)사이트나 web사이트 등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곳을 통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외대 홈페이지와 다를 바가 없다. 홈페이지나 web사이트가 의미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URL(Union Resource Locator)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 파일에 있는 정보 또는 파일이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외대의 홈페이지는 http://www.hufs.ac.kr/이며 한국외대의 웹사이트는 http://www.hufs.ac.kr/이다. 외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컴퓨터를 통해 윈도우로 들어가 넷스케이프를 실행시키고 Location이라고 써 있는 곳에 외대 홈페이지 주소인 http://www.hufs.ac.kr/라고 쓰면 된다. 그러나 개설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이며 미흡한 점이 많고 따라서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쏟아져오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문명의 이기를 현명히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본교의 홈페이지 개설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좀다고만 하는 외대, 그러나 가상의 공간에서는 마음껏 정보의 나래를 펼 수 있을 것이다.

염혜진 기자

소금쟁이

사이버

사이버란 현존하는 모든 것의 실제와 다른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말이 사이버 스페이스이다. 현대에는 모든 컴퓨터가 통신망을 통해 거미줄(WEB)처럼 연결되면서 전세계가 하나의 가상 공동체(사이버 스페이스 혹은 네트)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가상 사회의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사이버(cyber)'라는 접두어가 붙은 단어들이 무수히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 데이콤에서 천리안이라는 온라인 컴퓨터 통신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상 공동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이제 세계는 실질적으로 정보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새로운 두 세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이전의 것과는 양상이 다른, 현실세계와 가상 세계와의 싸움인 것이다. 점차 현실 세계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가상 세계에 의한 현실의 대체 내지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동일시로 귀결되어 지는 느낌이다. "자아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은, 사이버 즉 사이버 스페이스의 또다른 측면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학술단신

본교 김원식교수
독일어 관용어 사전 발간

국내 최초의 독일어 관용어 사전이 본교 김원식(언어학과)교수에 의해 발간됐다.

이 사전의 특징은 2만5천여개의 숙어와 3천여개의 예문을 담았다. 관용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어체 예문을 최대한 수록했고, 문어체 예문은 최근 독일어 잡지나 신문기사 등 일상적이고 심용적인 문헌에서 발췌했다. 또한 우리말 독음이도 함께 실어 작문 능력 및 회화 능력 배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원식교수는 "5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 사전은 독일어 구사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학생과 유학을 계획하거나 어학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이에게 큰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15000원

제20차 모의유엔총회 개최
아시아 국가의 질서 다뤄

제20차 모의유엔총회가 9월 21일(토) 오후 2시 한국종합전시장 4층 국제회의실에서 모의국제연합 주최로 열린다.

모의국제연합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질서 재편'을 의제로 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전과 다름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강대국들이 집중돼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질서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대만 간의 갈등과 내년 7월 중국으로 반환되는 홍콩 및 주변국 간의 관계를 주 소재로 다룰 예정이다.

서어과 학술제

용인 캠퍼스 서반어과는 오는 18일(수), 19일(목)의 양일 간에 걸쳐 학술제를 갖는다. 첫날에는 '아르헨티나 가우초 음악제, 문화제'가, 19일 둘째날에는 '아르헨티나 경제사 중심의 경제 조명' 및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에 대해서'란 내용으로 진행된다. 91년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인 이번 행사와 관련, 기획부장 오병준(2)군은 "중남미 국가중 아르헨티나는 경제성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크다며,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장소는 후생복지관 4층이며 시간은 1시이다.

민교협, 언론대책특위 구성
언론아카데미, 토론회 등 개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지난 9일 언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교협은 이날 특위발족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언론이 낡은 이데올로기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현재 언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언론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번 특위 발족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언론에 한층련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모든 입들에 대해 뉴스가치를 의도적으로 전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정부에도 역시 "언론의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대책위는 앞으로 언론보도를 비평하고 교수들의 기고활동을 통해 이를 알려낼 것이며 민주적인 기자양성을 위해 언론아카데미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민교협은 이와 관련, 오는 21일(토)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목요강좌
미국문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 도모

한국영어영문학회는 9월 5일(목)부터 11월 28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미공보원자료정보실에서 뉴 잉글랜드 전통에 관한 강좌를 연다. 이번 목요 강좌는 문학사적인 의의를 갖는 작가들 뿐만 아니라 신학, 철학 등의 인접분야의 흐름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미국문학연구를 중심으로 학제적 연구의 한 예를 제시할 뿐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용인 캠퍼스 식단 점검

세련된 식당, 맛있은 음식, 그러나 편리는 없다

배식구 · 배식시간 문제로 이용 불편

개강과 동시에 학생들은 새로 단장한 학생식당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의 화려함과는 달리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 외의 여러 재반시설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다.

"세련된 매장에 다양한 상품, 편리한 지하철까지"

모 백화점 광고문구다. 이에 뒤질세라 본교 용인캠퍼스의 식당들도 하나같이 외치고 있다. "세련된 식당에 맛있는 음식, 가까운 위치까지" 라고.

용인캠퍼스의 2개 식당(후생관 식당, 어문관 식당)이 예전의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학교식당에 대한 이미지 - 언제나 지저분한 식탁, 덜 씻어서 음식 찌꺼기가 남은 식판과 수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식단, 머리카락을 양념으로 맛을 더한 반찬 - 를 바꿔 놓고 있다. 반들거리는 식탁과 바닥, 콘베이어시스템처럼 자동으로 퇴식되는 퇴식구,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으로 친절하게 반겨주시는 주방의 아줌마, 지하철도 버스도 아닌데 정액카드로 음식값은 지불하는 식당.

이처럼 식당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되게' 바뀌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가 의외로 높다. 후생관 식당에서 만난 박현정(서학 · 서반아어 4)양 역시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실질적인 배식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줄이 항상 길다. 점심시간의 경우는 기다리다가 그냥 굶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한다.

용인캠퍼스 식당은 어문관이 500석, 후생관 800석으로 전체 1,300석이다. 전체 학생이 6,500명인 것에 비한다면 5분의 1수준인 식당의 좌석수는 그리 적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식당의 줄은 점심, 저녁 시간만 되면 2 · 30미터 가량 늘어서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 학생위원회 문근수(서학 · 불어 4) 정책위원장은 "원인은 2가지다. 배식구가 하나 또는 두개 밖에 되지 않다는 것과 배식시간이 2 ·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배식구도 늘려야겠지만 그보다는 배식시간을 대폭 늘려 언제든지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이번 공간재조정을 통해 승차장 매점이 휴게실과 탁구장으로 이용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다. 집에 가기 전 라면이나 떡볶이 등을 통해 출출함을 달래줬던 승차장 매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한다. 문정책위원장은 "공간재조정을 담당했던 '공간조정위원회'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간배치를 실시한 결과다"라며 학교행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다. 이 밖에도 후생관의 식당은 배수시설, 전압문제, 중앙난방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단수, 배식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캠퍼스의 식당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단지 겉모습만 치장하고 실제 식당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외시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문관 식당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후생관 식당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건물인데 새 건물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할 배수시설, 중앙난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는 대학 당국의 반성을 요하는 것이 아닐까.

김태형 기자

생활 시평

뱃지는 말한다

거리에 나선 젊은이들을 보자. 아마 요사이 또다른 유행을 알게 될 것이다. 화려한 차림새의 뒷모습엔 각종 뱃지가 주렁주렁 달린 가방이 있다.

요새 한창 유행은 가방에 뱃지를 다는 것이다. 코카콜라 병마개, 외국십벌의 스마일 뱃지, 배낭여행 때 구입한 외국명소 뱃지 등 다종다양하다.

어느새 유행을 타는 장신구가 되어버린 뱃지는 사실 신분이나 직무, 명예 등을 나타내기 위해 옷,모자에 붙이는 표정이다.

중고교 시절 선도부에게 걸릴까봐 꼭꼭 달고 다니던 학교뱃지, 회사원들의 자기업 뱃지, 국회의원들의 금뱃지 등이 그러한 것이다. 꾸미기 위한 장신구가 되어 버린 뱃지를 보면서 뱃지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무엇을 알려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뱃지를 달면서 내가 달고 다니는 뱃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무엇을 홍보하고 다니는지 되짚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쁜 디자인이라 달고 다니던 뱃지지만 코카콜라 마시자는 홍보요, 외화상표의 선전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물론 이런 뱃지들과 달리 '말하는 뱃지'들도 많다. 일단 학내에서 제작되었던 대동제 기념, 외대 이미지 홍보, 5 · 18 특별법제정 요구, 최근 민주납부성사를 위한 뱃지를 달고 다니면서 그 내용을 홍보하고 동참하고자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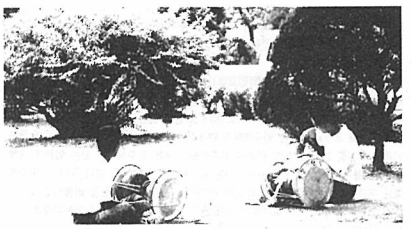
예쁨과 특이함에 앞서 뱃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체성을 가지고 다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최근 공안탄압분위기 속에서 총학생회 수익사업이 금지되면서 뱃지판매도 어려워졌다. 예전의 많은 뱃지들이 사회적 진실을 외치며 동참을 요구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에서 '뱃지판매금지 뱃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어떨지.

한승주 기자

동아리 공연 문제 ①공연 시설, 연습장소의 부재-서울캠퍼스

'우리는 당당히 연습하고 싶다'



5시 이후 학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풍물패의 풍물 소리때문에 또 4층에 올라가면 악기를 다루는 동아리의 음악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언뜻 생각하면 풍물패나 동아리들을 원망하겠지만 원망하기 전에 근본적 문제를 생각해 보자. 관현악반의 경우 연습하기에는 동아리 방이 너무 작다 - 악기만 다 놓아도 공간이 꽉 찬다. 또 관현악반을 포함한 공연분과의 경우 대부분의 방들이 방음시설의 미비로 인해 다른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 건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수업이 끝난 5시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관현악반 연습 공간의 문제에 대해 관현악반의 부회장 김지희(서양 · 이태리 2)양은 "그나마 8시 이후에는 건물을 폐쇄해 버리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 대강당에서 공연을 할 때는 공연하는 그 날만 빌려주기 때문에 예행연습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잔디밭이나 미네르바 동산에 보이는 풍물패는 겨우 4-5개 밖에 되지 않지만 교내에는 무려 200여 풍물일꾼들이 모인 14개의 풍물패가 있다. 풍물패 역시 5시 이후에 연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습을 하더라도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어느 패는 경희대까지가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교수 연구동이 완공되면 사회과학관에 벽을 허물어 넓은 장소를 마련하거나 학생회관 이나 본관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 준다고한다. 그러나 박순주(시범 · 독교 4)양은 "가뜩이나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데다가 허물어야 할 벽이 내력벽이라 위험하기 그지없다. 또 후자에 관해서 학교측에서는 본관 건물은 학교의 중심 건물이라 꺼리며 학관을 고려하고 있지만 학관 또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더구나 고시원이 바로 옆에 있어 고시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며 학교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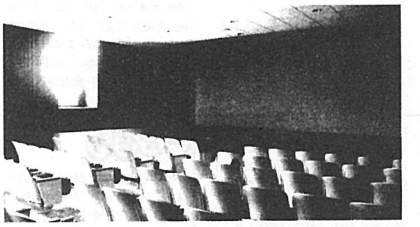
가면극연구회, 외대 연극회 등 거의 모든 동아리들이 연습 장소와 그로 인한 소음때문에 골치를 썩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현재 유명무실해진 방음장치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스폰지가 아닌 좀더 방음효과가 뛰어난 재료를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공연동아리들이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과학관의 개방시간을 현재의 8시에서 10시 정도로 대폭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습장소가 마땅히 없고 당장 학교 측에서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과학관의 개방시간이 절실하다.

서윤경 기자

동아리 공연 문제 ①공연 시설, 연습장소의 부재-용인캠퍼스

공연시설 없는 우리는 떠돌이



개강후 각 동아리들의 공연이나 전시 소식은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준비하는 동아리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공연 또는 전시에 앞서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연장소나 공연시설의 부재로 인한 것들이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학교에서 '문화공연장소'라 칭하는 공간은 모두 네 군데다. 자연과학대에 있는 대강당과 노천극장, 학생회관 1층 전시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건축한 후생관 4층에 있는 소극장이다.

먼저 학생회관 전시실은 이용 빈도수가 가장 높음에도 조명기기의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번에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연 사진반 누리에 회장 박시점(동구 · 항가리 2)양은 "작품에 비해 조명수가 턱없이 부족해 사진의 명암이 의도와 다르게 표현될 때가 많다"고 아쉬움을 표한다.

아쉬움을 남기는 또 하나의 공연장소는 바로 노천극장. 노천극장의 경우는 공연장소임에도 조명과 음향기기의 부재로 실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노천극장에는 무대시설을 보호할 지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캠퍼스도 본래 노천극장이 지붕이 없었던 것을 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용인캠퍼스의 노천극장 또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학내에서 단 한 군데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강당은 강당의 규모가 너무 커서 동아리들의 소공연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대강당을 제외한 공연장소에서는 무대장치의 부재로 인해 동아리들간에 서로 기기를 돌려 쓰는 일이 흔하다.

당연히 학교기관에서 제공해 줘야할 무대장치들을 동아리 '연결'에서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심기하기만 할 따름이다.

이처럼 본교에는 상설적인 '전용공연장'이 없다. 때문에 공연을 할 때마다 매일 조명, 음향 장치를 옮겨오고 옮겨가는 번거러운 작업을 쉼없이 해대야 한다. 학생처 동아리담당 정종훈씨는 "소강당의 경우는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 조처를 시발로 해서 다른 공연장소에도 여러 무대장치들을 삼시적으로 설치해 놓아 동아리들이 언제든지 연습할

외대따라잡기

<>상징동물-비둘기

비둘기가 본교의 상징이 된것은 외대의 특성상 외국어를 공부한 뒤 혹시라도 마음까지 외국으로 보낼까 두려워서이다. 왜냐면 비둘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필요에 의해 외국어를 배울지라도 언제나 그 정신은 우리의 조국 한반도를 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아무리 비둘기가 본교의 상징동물이지만 현재처럼 많아진 이유를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80년도 후반 본보에서는 '비둘기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모금운동을 해 2,000마리의 비둘기를 서울캠퍼스에 풀어 놓았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비둘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건물이 부식되고 학생들 또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화부

문 화 옹 달 샘

새 책

신영복 지음

나무야 나무야

돌베개/5,800

작가는 68년 통일혁명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20일을 복역한 후 88년 특별가석방되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 '사람아 아! 사람아'의 역자로 유명한 그는 현재 성공회대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글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작가는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다니며 느꼈던 연상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화술을 풀어나간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가 자신의 시신을 해부하게 하였던 얼음골, 하난설헌의 무덤, 백담사 등의 경치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작가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다.

안병섭 외 지음

세계영화100

한거레신문사/8,000

뤼미에르와 멜리에스. 이 책에서는 세상을 그대로 기록한 뤼미에르보다 세상을 해석하여 기록한 멜리에스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이 책에서는 해석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영화사에서 한 몫을 한 감독의 작품을 감독과 함께 곱을 해준다. 길위에서의 삶이 사람을 통해 구원되는 것을 담은 펠리니의 '길', 허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정형화된 영화형식에 파괴를 가져온 장 뤽 고드르의 '네 멋대로 해라', 앙마르 베리만의 '제 7의 봉인' 앨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 등이 그 예이다.

이주의 영화

올리시즈의 시선(ULYSSES' GAZE)

감독:테오 앙겔로풀로스

주연:하비 키이텔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은 20세기의 세계의 화약고인 '페비린내 나는' 발칸 반도이다. 미국으로 망명한 그리이스 출신의 영화감독 A는 발칸 반도의 역사와 관습을 담은 현상도 채 않된 세 통의 필름을 찾기 위해 35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A는 세통의 필름을 찾으러 여행을 하면서 네명의 여인을 만나고 헤어진다. A는 세여인을 만나서 필름행방의 단서를 얻고 마침내 네번째 여인을 만나면서 필름을 찾게 되지만 사랑하는 그 여인은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에게 사살된다. 이 영화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지만 감독 특유의 롱 테이크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영상과 시같은 대사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주의 비디오

스타 메이커(STAR MAKER)

감독:토르나토레

주연:키스텔리토

이탈리아의 시칠리에 조라는 사람이 유료 오디션을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 등은 오디션을 보러 와서 조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조가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날 고아 소녀 베아타가 조와 만나게 되고 무작정 조를 따라 나선 베아타를 통해 조의 잃어버린 양심과 사랑에 온기가 돌아온다. 그러나 조는 사기죄로 감옥생활을 하나온 후 그때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베아타를 만나게 된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얽어 매는 속박이 무었인지를 되짚어 주어야 한다. 이 영화는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따뜻하고 느낌좋은 영화.

공 연

꽃다지 신곡발표 콘서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일시:9월 24일(화) - 29일(일)

장소:서울두레(대학로 동성고교 옆)

입장료:12,000원

문의:332-5310, 3673-2961

'희망의 노래 꽃다지'가 6일 동안에 걸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제목으로 대학로 서울두레에서 신곡발표 콘서트를 갖는다.

92년 3월 창립 이후 통일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실천으로 안아오고자 꾸준히 노래로써 활동을 전개한 이들은 94년 '민들레처럼'과 95년 '노동가요 공식음반' 발매 이후 노동가요의 새로운 정형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강' 등을 비롯한 총 18곡의 신곡이 110분 동안 이야기와 함께 연주된다. 꽃다지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층 진일보한 민중음악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꽃다지의 가창과 연주, 편곡에 있어 새로움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조 식	중식 I	중식 II
월(16일)	우거지갈자국 (₩1,300)	휘시커틀렛 (₩2,000)	동태찌개 (₩1,800)
화(17일)	오징어달밥 (₩1,300)	카레돈까스 (₩2,000)	갈비탕 (₩1,800)
수(18일)	오므라이스 (₩1,300)	비프스테이크 (₩2,000)	제육볶음 (₩1,800)
목(19일)	콩나물비빔밥 (₩1,300)	도미 뮤니에르 (₩1,800)	닭강정 (₩2,000)
금(20일)	소고기미역국 (₩1,300)	꼬르돈블루 (₩1,800)	영양밥 (₩2,000)

(제공: 생활협동조합 · 총무처 후생과)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16일)	두부된장찌개 (₩1,300)	나물비빔밥 (₩1,400)	쇠고기달밥 (₩1,200)
화(17일)	쇠고기국밥 (₩1,300)	꽁치조림백반 (₩1,300)	하이라이스 (₩1,400)
수(18일)	순두부찌개 (₩1,000)	오징어볶음달밥 (₩1,500)	아욱김치찌개 (₩1,400)
목(19일)	우거지탕 (₩1,000)	짜장밥 (₩1,200)	야채볶음밥 (₩1,200)
금(20일)	육개장 (₩1,300)	불고기백반 (₩1,200)	닭곰탕 (₩1,300)

제1회 대학마당극 한마당

관객을 흥겨움의 주인으로 참여시키자

순수 창작물들 속의 사회읽기

서탈협이 올해 준비한 '제1회 대학 마당극 한마당'은 그동안 활동해 온 탈패들의 성과를 이어 내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탈패의 전망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마당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전통의 춘향전, 배비장전 등의 구성진 가락과, 무대를 죽 둘러싸고 앉아 있는 관객들의 흥겨운 모습, 배우들의 재치넘치는 대사에 맞춰 터져나오는 관객들의 폭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흥들이 모여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무대로 달려나와 어깨춤을 추는 관객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흥겨움이 전통의 소재들에서 벗어나,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있다. 바로 오는 19(목)일부터 21(토)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제 1회 대학마당극 한마당'이다. 이번 공연을 준비해온 '서울지역탈패협의회'(서탈협)는 서울지역 30개 대학동아리의 협의체로서 87년 각대학에 분산돼있는 예술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대와 고려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이다. 올해 준비한 '대학 마당극 한마당'은 그동안 활동해온 성과를 총화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탈패의 전망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우선 내용적인 면에서 기존의 마당극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해준다. 서울교대 탈사람의 '새로운 공동체 논리', 동덕여대 하야가 준비한 '새야 새야 나의 새야'는 고문피해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또 명지대 탈터사람은 김영삼정권의 실정과 교육재정의 문제를, 고려대 탈·사람·우리는 '파란'이란 작품을 통해 성을 역사적·사회적 사건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밖에도 고 노수석학우의 죽음이나 등록금 문제 등이 소재로 다뤄진다. 이처럼 '대학 마당극 한마당'은 순수창작품들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에 놓여져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 보려하고 있다. 본교 서울캠퍼스의 가면극연구회 역시 19일 산업대, 이대, 명지대와의 연합공연인 봉산탈춤을 선보이게 된다. 가면극연구회 회장 김영일(동양·태국어 2)군은 "마당극을 해도 예전처럼 흥을 돋궈줄 관객이 많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조금은 저하돼 버린 탈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마당극의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군은 마당극이란 '마임과 춤으로 이뤄지는 함축된 뮤지컬'이라고 정의하며 무엇보다도 관객과의 정서적 교류를 마당극의 첫째가는 묘미로 꼽았다.

대학사회에는 많은 문예활동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을 공동체라는 두리로 묶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연극, 노래, 춤을 바라보는 많은 학생들은 아직 주변부에 서서 그것을 감상하고 스쳐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혈관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이라는 정서와 관객을 흥겨움의 주인으로 참여시킨다는 점, 그리고 한번쯤은 대학생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주목된다. 이 세가지가 모여서 '민족공동체문화'라는 열매를 맺게될 지는 공연이 끝난후 관객들의 감동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목)부터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화부

마당극의 역사와 성과

민중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

마당극은 이제 누구에게나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다. 태어난지 10년만에 마당극은 어느덧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나가면서 이 시대의 가장 진취적인 연극개념과 가장 친숙한 연극행위로 다가와 있다.

마당극은 탈춤에 근원한다. 초기의 탈춤은 소박한 농촌탈춤이라는 형식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조선시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도시탈춤으로 발전되었다.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탈춤은 신분제, 처첩제, 관념적 허위의식 등을 소박한 풍자, 해학, 어우러짐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70년대 초에는 열풍처럼 대학가를 휩쓴 탈춤부흥운동으로 되살아나 이전에 탈춤이 가지고 있던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군부독재라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새롭게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학생들은 현실의 절실한 문제를 탈춤의 형식 속에 담아내려는 '창작탈춤운동'과, 전통극의 이념과 내용과 형식을 민족·민중의 시각에서 새로이 정립하려는 '마당극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마당극의 개념은 70년대를 통틀어 가장 진취적인 운동의 견인차로서 다른 부문의 문화운동을 이끌었다. 우선, 마당극은 지식인 특유의 관념유희나 공허한 말장난보다는 일반 민중의 부대끼는 삶 속에 매몰돼 있는 절실한 문제를 탈춤식으로 몇 개의 장면, 또는 과장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마당극은 민중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곳이면 어디서나 관을 벌여 민중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러한 삶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둘째로, 마당극은 언론자유가 질식상태에 빠진 유신치하에서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보여주는 일종의 민중언론매체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즉 마당극은 거칠고 투박한 대사나 몸짓으로, 단순화되고 과장된 연기를 통해 진실에 대한 열정과 불의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표출한다. 그 결과 마당극은 전투적인 날카로움과 공격성을 띄게 되고 본디 우리 전통연희가 지녔던 푸근한 해학을 놓치기도 한다.

세째, 마당극은 60년대 이후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되살리는데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공동체의식의 확인과 강화에 '굿'적인 요소들이 조합된 '마당굿'의 개념이 80년대 이후 도입되어 마당극 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놓았다. 최근 마당극은 점차 대동놀이의 성격을 띄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홍연화 기자

□ '토요불법영화제' 정책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자유, 영화로 해방시키렵니다"

지난 6월 14일 경찰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이유로 '푸른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고 그 결과 대표 '김동원'씨를 구속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푸른영상을 비롯한 100개쯤의 독립영화단체와 영화작가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표현의 자유 쟁취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을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우선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폐지를 위한 '토요불법영화제'(영화제)를 마련했다. 이에 본보에서는 대책위 최진아(독립영화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난 6월 7일 개정된 음비법은 건강한 창작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음비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상업영화는 완전등급제로, 독립영화(단편·소형영화)는 등록·심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음반과 비디오를 분리하고 대신 영화와 비디오를 통합하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음반법과 심의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비디오법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개정된 음비법이 단편·소형영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데

=예전에는 단편·소형영화에 대한 특별한 법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단편·소형영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음비법은 제작업등록, 심의, 판매에 있어 독립영화인 뿐만 아니라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 대학생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또 음비법 중 '등록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작업자의 등록 요건을 '영상편집기 1세트 이상, 칼라 모니터 3대 이상, 복사용 녹화기 100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돈이 없으면 창작도 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르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인 것이다.

-음비법 폐지를 위해 하고 있는 '토요불법영화제'가 어떤 가시적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믿는가.

='불법영화제'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요독립영화 거리상영회'(상영회)라고 불러달라. 이 행사를 통해 당장 음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될 거라고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투쟁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보장만을 주장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관객'의 입장까지 확대되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게 됐다는데서 상영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계획은

='악법 어기기 투쟁'은 많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국회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미 영화 '파업전야'에 대한 위헌결정은 '영화법상의 등록조항이 영화 제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합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영화법상의 '등록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심의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따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하는 10월 12일(토)에는 대규모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검열반대의 상징적 행사로 '파업전야'를 상영하고 이 밖에도 문예공연 등 흥미있는 내용의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태형 기자

문화단신

용인

손말사랑회 장애인에 대한 가두홍보제 가져

수화통역 자원봉사 동아리 손말사랑회가 지난 11일(수)과 12일(목) 양일간 승차장과 후복관 앞에서 가두 홍보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우들에게 직접 수화를 선보이는 한편,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과 청각 장애인에 대한 예절을 설명한 종이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행사와 관련, 회장 김은철(자연·환경 2)군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말했다.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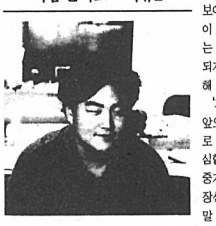
만화모임 '해갈' 제 2회 애니메이션 상영회

제 2회 애니메이션 상영회가 본교 대강당에서 12(목)·13일(금) 양일에 걸쳐 만화 모임 해갈 주최로 열렸다. 이번 상영회에는 캐나다 단편만화영화와 일본만화영화(붉은 돼지, 메모리즈, 아키라, 반딧불의 묘, 공각기동대)가 상영되었다.이번 상영회에서 특히 일본만화영화나하여 말이 많았는데 이에 해갈의 이태용(서양.이태리 2)군은 "우선 법적인 문제로 일본것을 상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하면서 이번 기회에 일본문화에 대한 전반적 제고와 함께 일본만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만화에대한 생각이 발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영회는 특히나 반딧불의 묘에서는 일본의 2차대전에 대한 망령된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갈에서는 작품소개서에서 뿐만 아니라 상영전 작품설명에서 관객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순서를 마련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음반 사전심의제도 철폐 기념 콘서트… 자유2



드디어 음반사전심의제도가 철폐되었다. 이 단순한 한마디는 민중가요를 하는 노래꾼들에게는 희소식임과 동시에 끝없는 혼란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비록 사후심의제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은 사회노래패들이 자신의 영역을 꿋꿋이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합법과 불법의 기준으로 어느정도는 명확하게 가려졌던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구분선을 상당부분 흐려놓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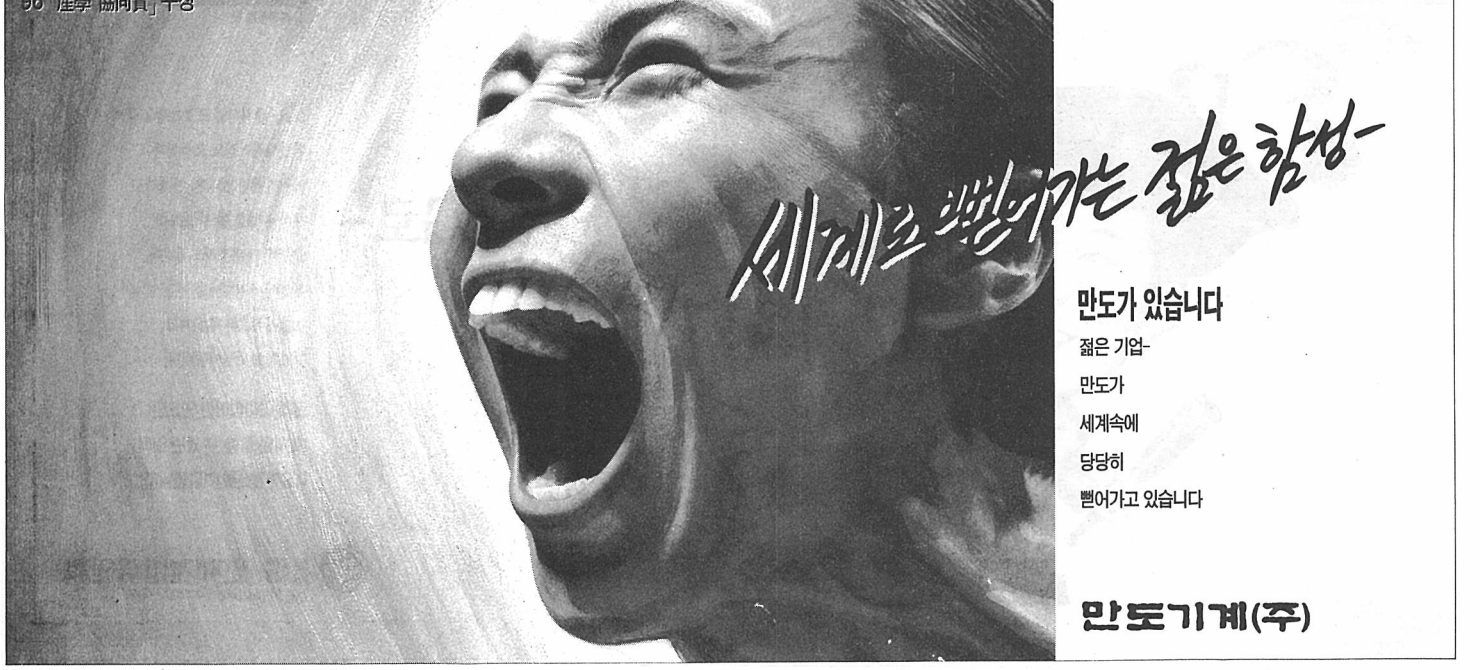
'자유' 콘서트가 그 두 번째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기간에서 음반사전심의제도 철폐를 기념하는 것이 주된 가지였다면 이번에는 모든 음반의 유통구조와 유행 스타중심의 대중가요계를 질타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 일반 무모한 모험인 듯도 싶은, 전국 순회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한다.

일단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부활을 꿈꾸며' 지나친 록 중심의 편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고질병 - 가능성이 보이는 한 장르를 밑바닥이 드러날때까지 후벼파는 - 에 혹여나 일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본다.

'자유' 계열의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형태로 열리게 될 것이다. 명심할 것은, 대중가요와 민중가요의 대립구도의 연장선에서 관람하려 하지 말 것과, 일단 TV 영화 기타 대중매체에서 소외된 연령계층을 향한 대중성의 확보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일이다. 또, 매스미디어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정보의 홍수에 대해서보다는 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접할 수 있을 터이니, 장소와 시간 등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한 배려로 해 두자.

양 성 진

〈동양·일본4, 외대노래창작단 "청년"〉



한총련의장 정명기군을 만나

"우리의 정당성, 대선에서 심판할 터."

한총련 연세대통일투쟁 과정에서 500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고 450여명이 구속됐다. 이에 대한 입장과 현재상황은 어떠한가

=정권의 공안탄압은 순수한 학생운동 단체인 한총련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남과 북, 해외의 3자가 모여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데 무차별한 탄압으로 많은 학생들이 연행, 구속됐다.

-통일대축전을 준비하며 두명의 학생이 한총련 대표로 방북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데

=두명의 대표를 북한에 파견한 것은 결성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범청학련 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북의 대표를 초청,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대표는 북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고, 자주통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분단의 사선을 넘었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은 범청학련 연석회의의 대표들을 초청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번 8·15행사에서 한총련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같다는 이유로 친북단체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나갔는데

=연방제통일방안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의 3대원칙의 하나인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이념에 근거하여 남과 북의 같은수와 해외적정수의 연방정부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정치·군사·외교 등 국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남과북에는 지역정부를 구성,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방안이다. 통일연방국가는 어떠한 경제블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니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게 된다.

-이번 투쟁에서는 학생들의 폭력성이 많이 대두됐다. 한총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화통일'과 대치되는 말이 아닌가

=한총련은 대외를 평화적으로 치르고 15일 이후 투쟁(북에 파견한 대표맞이를 위한 판문점진격투쟁과 전두환·노태우 등 5월 학살자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었다)을 모두 취소하고 자진 해산할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은 집에 돌아가려는 학생을 연세대학 및 개 건물에 고립시켜 놓고 음식물과 의약품은 물론 여성용품까지 차단하는 극한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역대 군사정권에서 없었던 일이다. 언론에서는 학생들의 정당방위만을 폭력적으로 부각시켰을 뿐 경찰들의 폭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범민족대회는 벌써 6년이나 치렀던 행사이다. 올해 특별히 문제가 됐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김영삼대통령의 최대의 고민은 퇴임 이후 신변보장과 가족의 안정이라고 한다. 노태우와 손잡은 3당합당, 친문학직 역수의 대선자금, 이는 김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개혁드라이브의 한계로도 드러나고 있다. 대선을 앞둔 권력말기, 신한국당은 대선후보를 놓고 4분 5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김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이후 투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직 크게 결정된 바 없다. 우선은 조직재정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이번 투쟁을 통해 더욱 성숙된 주체의 결의를 모아 한반도 내에서의 정쟁반대, 내년 대선시기 정권교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연대8·15행사 보름 후 비대위의 최홍재 총무를 만나

"순수한 민간통일운동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성등기와 그 동안의 구체적인 활동상황, 그리고 앞으로 투쟁방향 등을 비대위 총무를 맡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최홍재씨를 만나 들었다.올해 통일행사가 두 개로 치뤄지게 되면서 전국연합에서는 아직 확실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위측의 의견에서 대략적인 평가의 방향과 틀을 읽을 수 있었다. 편집자

-비대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먼저 전국연합을 비롯한 몇 개 단체에서 8월 19일 '연대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래서 20일(화) 연대내부로 음식물을 반입하려 갔으나 학생들은 이미 잡혀가거나 탈출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그 날 바로 비대위를 조직했다.

-비대위에 참가한 사회단체는 몇 개인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연합 등 37개의 단체가 참가했다.

-그 동안 비대위의 활동상황은?

=민변에서 구속자들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가협과 인권운동협의회에서는 진상조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론사 항의방문도 했으며, 민교협 시국토론회도 열었다. 그리고 24일에는 '민간통일운동보장과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성추행 문제, 연행자 폭행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민변에 취합된 폭행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박일룡 경찰청장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달 말 박청장과 해당 경찰관을 고발할 것이다.

-이번 연대통일투쟁에 대한 평가는 내려졌는가?

=통일운동이 단결되지 않아 두 개의 대회가 열린 관계로 아직 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평가를 잡고 있으니 조만간에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비대위 활동의 중심은 어떤 것인가?

=비대위가 수배된 간부들의 수배를 푼다든가 공안탄압을 전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학생들의 인권관련문제,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폭행문제 등을 다루고 이후 전개될 공안탄압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쟁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대국민선전을 위해 유인물을 계속 제작, 배포중이다. 또 하나는 순수한 민간통일운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민족민주운동진영은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 투쟁방향은?

=지금까지 진상조사와 한총련 탄압중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다면 이후의 투쟁은 안기부 관련법개악과 집회시위법 개악 저지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안기부법은 정권측에서 최고의 개혁조치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다함께 투쟁해야 한다. 단결만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순수한 통일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겪하히 평가해 앞으로도 남한의 사회개혁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을 굳건히 내세우고 4대투쟁과제를 가지고 열린 연대통일투쟁에 관한 평가에 약간의 이견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사회개혁에서 한총련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라는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는 '한총련 죽이기'공작을 물리치고 '한총련 살리기'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주민일손주기운동본부를 찾아

통일을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

보다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계기 마련

북한 동포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물물교환형태의 북한돕기운동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무상으로 곡물을 보내는 기존의 북한돕기운동은 정부의 남북 교역창구 단일화와 흥보 부족 등의 정책적 제약으로 국민의 참여도가 떨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백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주민일손주기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북한돕기운동이 시작되었다. 일손주기본부는 지난 7월 (주)씨피코국제교역과 중국에 나와있는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의 조선동흥무역주식회사가 계약하여 만든 찻잔받침대 40여만개를 반입했다.

반입한 물품은 일손주기본부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그 회원기입비가 물품제작에 참여한 북한 주민들에게 제 3국을 통해 옥수수와 밀로 바뀌어 돌아감으로써 물물교환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주민일손주기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나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큰 과제는 아니지만, 보다 쉽게 통일을 향해 다가가는 첫 걸음이 된다. 사진은 북한주민들이 제휴지로 만든 컵받침이다.

그리 널리 알려 지지 않았는데도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던 북한주민 일손주기본부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건행 사무처장은 "3000원의 회원비로 물품 하나를 사주면 북한의 4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다. 또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으며, 교류가 활성화되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 북한의 개방까지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교역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에 이건행씨는 "북한은 아직 개방이 안된 곳이고,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물건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납품기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북한쪽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이 운동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동포를 도와야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소박한 바램을 나타냈다. 일손주기본부는 올 연말에 연하장, 목걸이, 염주 등을 또 들여 올 예정이고, 현재 1만여명인 회원 수를 늘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시, 도, 지부를 공개 모집하고, 10월 중순에는 천만인 서명운동과 12월에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가곡제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주민일손주기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나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정치적 비중이 큰 과제는 아니지만 보다 쉽게 통일을 향해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기자

'96 전국농민대회 탄압속에 개최

집회불허,강제연행 잇달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10일(화) 여의도광장에서 농민 7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자급과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96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농민대회는 지난 5일(목) 정부당국의 유례없는 집회불허조치에 이어 지난 8일(일) 전국도보행진단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강제연행으로 행사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에 여의도광장 안에서만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전농측의 통고로 집회가 허가되었으나 전투경찰 1만 5천여명과 농민 7천여명이 대치한 가운데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쌀 수매가 인상, 최소시장접근규정에 따른 의무도입물량 외 쌀 수입금지, 의료보험통합 등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수입쌀을 실은 모형 선박의 화형식을 경찰의 제지로 거행하지 못하고, 행사에 참여하려던 학생들이 대거 연행되고, 행사장을 빠져나와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하려던 농민 35명이 지하철 안국역 부근에서 모두 연행당하는 등 정부측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농 의장 이수금씨는 "식용쌀을 수입하여 쌀 자립기반을 무너뜨린 김영삼정부를 규탄하며, 물상식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정권에 맞서 쌀자급과 민족농업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언론사 인사권을 장악하라'

방송법과 방송위 개혁을 통한 언론바로 세우기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의 앵무새밖에 될 수 없는가?

역대 정권하에서 언론은 중요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극소수의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정부와 행동을 같이했다. 좋든 싫든간에 정부의 비위를 맞춰야 만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식의 악어와 악어새같은 공존관계는 언론사를 목죄고 있는 방송법의 불합리성과 언론사 인사권의 정부장악에서 기인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는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부터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KBS이사회 이사들은 9명으로 구성된 방송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는 과정을 거친다. 방송위원회 역시 입법·행정·사법부에서 추천한 3명씩 9명을 대통령이 임면해 구성되는데 이들 9명중 입법부측 인사만 빼고 대부분 친여성향의 인사로 임명되고 있다. 입법부에서 추천한 3명도 1명정도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나머지 2명은 여당측 인사가 된다. 결국 9명중 8명정도가 친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MBC경우도 형식만 다를 뿐 상황은 KBS와 거의 흡사하다. 방송문화 진흥회(방문진) 이사 10명이 MBC사장을 선임하는데 이사 10명중 6명은 방송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이과정에서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형태의 인사권 개입을 통한 정부의 경영권 간접장악은 결국 언론의 공정보도를 방해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각 사업장의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몇달전 강성구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 파업을 벌인 MBC경우만 봐도알수 있다.

정부는 인사권 장악과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해 왔다.

지금 이런 분쟁의 불씨들이 여러곳에서서 감지되고 있다. 얼마전 새로 사장이 선임된 연합TV뉴스(YTN)는 실질적 대주주인 연합통신측인사를 배제한채 정부가 외부인사 사장 선임방침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연합TV뉴스에 통보하는 등, 사장선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임·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MBC노조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사장이 결재하기전 정부측 관계자와 SBS방송사 간부에게 인사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외부인사에게 전해들은 내용과 이날 저녁 발표된 인사내용이 국장급은 물론 부장급 보직까지 일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노동조합 건설준비위원회(방노위) 김진열 간사는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며 "방송법의 개정과 방송위의 개혁을 통한 정부의 입김배제로 올바른 인사와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종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국민회의, 자민련 두 야당에서 정기국회에 상정할 △공보처 폐지 △방송위원회 위상 강화△전국단위의 시청자 위원회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 야당공동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여러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언론 개혁은 더 이상 정부나 정당에 몫이 아니다.

방송개혁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시청자가 아닌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언론사 구조에서 더 이상의 언론의 개혁과 변화 공정한 보도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기자

죄송합니다. 이번 호 9면에 들어가야할 한국언론을 진단한③ - 국제적 망신인 북한 '오보'는 필자의 사정으로 이번주 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방송개혁 국민회의 사무처장 최문순씨를 만나

"언론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정부가 왜 방송사 인사권 문제에 관여한다고 보는가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이 문민정부도 결국 권력은 언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옛날 군부독재 시대처럼 총칼을 통한 통치는 힘들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이 정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인사권이 정부의 뜻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언론사 간부들은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번 연대사태 보도와 관련해 한마디 한다면

=언론의 편파·왜곡보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언론사 현실에서 진실보도가 나오기를 바라나 그들은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할 뿐이다.

-언론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방송법과 인사권 등에 대한 개정이 가장 급선무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비판과 애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언론을 감시하는데 정부가 쉽게 언론을 조종할 수 있겠는가 언론은 정부나 기업의 개인 소유가 아닌 우리 국민모두의 것이라는 자세를 가진 국민이 많아야만 언론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긴 급 설 문 조 사

한총련 연세대 8·15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학생들의 통일운동에 대해 알게 됐다. 또한 김영삼 정부의 '민주'가 지닌 한계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알게되는 계기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보수회귀'에 돌입했다. 농민, 빈민,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을 억누르고, 학생들에게는 학원안정화대책으로 자치활동을 규제하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보는 서울캠퍼스 서암어대에서 본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정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이번 연세대 8·15행사에서 정부의 가장 좋은 협조자는 다름아닌 언론이었다. 그러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50.2%의 학생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정부의 언론플레이가 그다지 먹혀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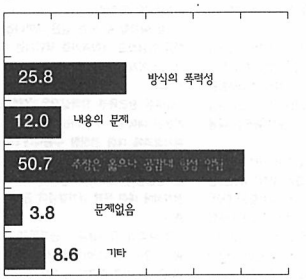
학생운동의 임무에 대해서는 34.9%가 '사회의 근본적 개혁추구'라고 답했고, 이외에도 학생복지(22%), 정치와 학내문제 병행(15.3%) 등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7%가 '주장하는 내용은 옳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와 정부의 학사행정 강화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46.8%가 학생자치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답해 이를 강행했을 경우 학생과 정부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영삼정권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 민생안정, 진압방식, 교육정책 등 각 항목에 골고루 응답해 정부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불만이 표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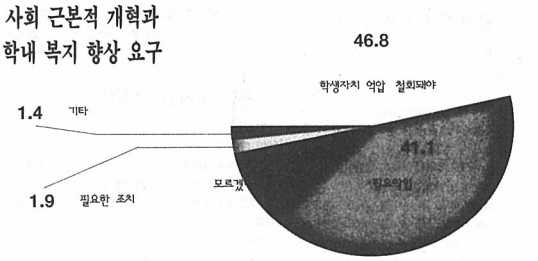
정리 사회부

질문 당신은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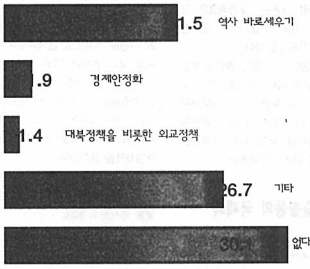
학생들 대부분 언론매체 불신

사회 근본적 개혁과 학내 복지 향상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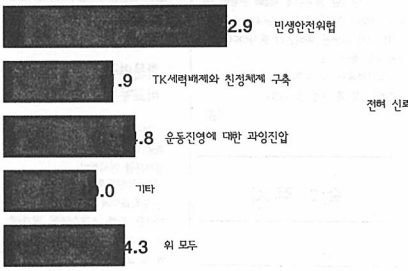


질문 정부의 학사행정 강화조치방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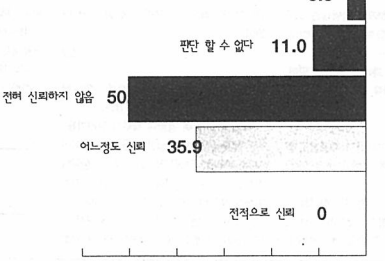
질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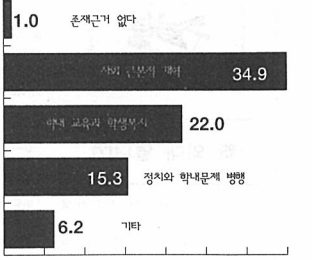
질문 반대로 김영삼 정권이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당신은 기성언론을 어느정도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질문 당신은 학생운동에 임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YONSEI FOREIGN LANGUAGE INSTITUTE & LYKEION

※ 삼성역(인터콘티넨탈 호텔앞)과 입구검문(국민은행앞)에서 리케이온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리케이온은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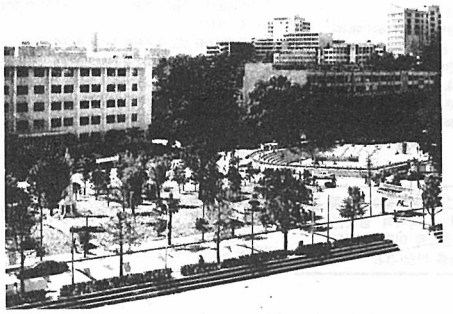
LYKEION

■개강 : 10월 1일 ■접수 : 9월 17일(화)~9월 24일(화) ■학기[과정(10.1~12.27) • Native English Conversation • Business English ■월과정(10.1~10.29) • Bilingual 영어/일어회화 • Free Talking • Mother's Class • AFKN • SCREEN ENGLISH • TOEIC L/C • TOEIC종합 • TOEFL 종합 리케이온 랭귀지 포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6 Tel. 02-3444-2929

대 학교육의 희망찾기 -대종평 무엇이 문제인가 ②시행과정

학생자치를 위협하는 대종평

대학자율화 침해 말아야



대학평가가 '대학교육신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학생자치권 탄압이라는 길로 우회하고 있다.

평가위해 자율성 퇴보

지난 21일(수) '불법적인 학생운동의 자금 및 활동공간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학생지도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놓고 대학종합평가인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자성의 물음이 일고 있다.

'자율성 제고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시 취지와는 반대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따라 줏대없이 변하는 평가방식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올해 학부제 도입논란과 관련해 본교도 "정부의 정책적 유도에 따른 것이다"라며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대학평가를 앞두고 정부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공개되지 않는 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휘두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를 부추긴다.

'인정'이라는 면죄부

94년 7개대, 95년 13개대, 96년 19개대 등 39개 대학이 대학평가의 문턱에 섰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 대학의 평가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6개 부분별 1위와 '인정' '불인정' 대학이다.

94년도 평가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부분은 '서울대 연구부분 1위, 포항공대 시설·설비부분 1위, 나머지 7개대 인정'이다. 각 대학이 받은 평점과 개선방향도 밝히지 않은채 단지 '인정'과 '불인정'만을 선포한 것이다.

작년까지 대학평가를 받은 모든 대학이 '인정'판정을 받았다.

5년을 주기로 한 이번 대학평가에서 모든 대학들에 '인정'이란 면죄부를 씌운다면 82년 이후 대학평가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대교협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종평, 학생자치 탄압 도구

작년 서울캠퍼스 상경대에서는 일부학과에서 돌연 신입생들을 5~6명씩 짝을 지어 교수면담을 해 학생들이 의구심을 갖게 했다. 대학종합평가에서는 6개 평가항목중의 하나로 7개항목 34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학생관련'부분이 있다.

상경대의 일은 이른바 '지도교수 면담제'였다.

△학생선발제도의 공정성과 적절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학생상담지도의 체제와 그 실적 △학부졸업생의 취업정도 △학생탈락률 정도 △학생장학금의 적절성 △학생의 자율적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관련부분 평가는 한총련 사태 이후 일부대학이 '자율적 학생활동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학생자치활동 탄압'의 이름으로 각 대학에서 △학생회 자치수입원 차단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금지 △학사관리 강화 △지도교수면담제를 통한 학생활동 감시 등으로 나타나고 교육부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식으로 이를 옹호하고 있다.

실제로 서강대 박홍 총장은 94년도 남총련 상경투쟁이후 '총학생회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폐지하고 강의실 지정좌석제를 실시한다'고 엄포했고 한남대 신문사는 한총련사태 관련기사에 대해 주간교수가 "대학평가가 끝날때까지 한총련, 노동관련 기사는 실을 생각도 하지말라"며 현재 인쇄중지를 내린 상태이다.

정직·공개적인 평가 돼야

3년을 맞고 있는 대학평가는 평가항목이 이공대에 치우친 것, 각 대학의 획일화를 추구하는 면, 대학자체평가 보고서의 신뢰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교육신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유도와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변동되는 현 대학평가의 모습이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대학나름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학평가를 책임지는 대교협이 소신있게 평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태수 전교육부 정책실장은 "대학평가의 기본은 대학측이 공개하는 자료와 정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다"라며 "결과에 승복하는 자신감, 발가벗고 평가받겠다는 당당함이 갖춰줘야 한다"고 대학당국의 정직성에 대한 문제 평가결과의 공개를 주장했다.

각 대학의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설 때만이 '학생자치권을 억누르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는 망언은 대학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김재경 기자

新 외대 열녀(?)

O… 해설자(그렇다! 우리의 자랑스런 외녀는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종 과고시를 위해 너무도 좋아하는 술을 끊고 칼같이 도서관으로 향하는데….

외녀(술관을 지나치며)"참아야 하느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지나치는 외녀,

"아니, 참고 싶어" 하지만 술냄새는 코끝을 스치고 "참아야만 할까?" 술잔을 내미는 잘생긴 남학생을 보며…

"아! 난 몰라 OO 과에 가야한단 말야. 나 학부제 열녀문 세워줘 임….

〈학〉

O… '우와! 헬기 떴다! 우리학교에도 헬기가 뜨는구나' 서총련 하반기 투쟁선포식 현장.

바로 그 대학 학생인 듯 보이는 한 학생의 첫마디. "떴다 떴다 헬기, 날아라! 날아라 우리 헬기♪"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는데. 노래가 끝나기 전 시뻘건 최루액을 뒤집어 쓴 그 학생이 후에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데….

"나 범민족대회 갔다 왔다!" "헬기도 뜨고 말이야. 막 최루액을 뿌리지 않겠니, 난 다 봤어"

〈진〉

O… 경희대 참새, 한양대 참새, 외대 참새가 모처럼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

목에 힘을 주며 경희대 참새가 말하기를 "우리는 정문에서 날면 산을 하나 넘어야 겨우 후문에 도착한단다"라고 하자 한양대 참새왈 "우리는 정문에서 날면 날다 지쳐 떨어질 때쯤 후문이 보이기 시작한단다"

침묵을 지키던 외대 참새왈 "난 외대서 10년 살았는데 변함없이 정문에서 뜨면 경희대 후문까지 갈다온단다"

〈훈〉

O… 지난 7일 동두천에 제2의 윤금이 여인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피의자인 미군은 묵비권만 행사하다가 미군부대로 돌아가고…

우리나라에서 '속지주의'란 속아주지, 뭐. 주한미군 뜻(意)대로 였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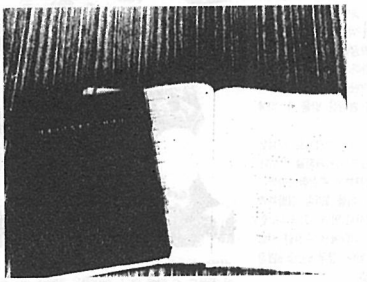
〈훈〉

속아주지

외 대발전의 새 지평을 위하여 ②계획안의 내용

계획대로만 되어도…

현실속 실질적 발전계획 유도해야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 학생참여 보장과 교육재정확보 방안 부분에 미진하다.

130쪽에 달하는 외대발전 5개년 계획은 학문의 창의적 탐구, 정보와 지식의 능동적 창출, 국제적 개방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교육의 질적 우수성과 특수성 확보 △사회적 적절성 제고 △학문의 국제화 추구를 중점목표로 두고 있다.

안병만 총장은 "계획안은 5년동안 기계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것 보다는 2천년대의 발전 비전을 생각해 계획을 마련했으며, 연동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며 책자 서문에 밝혔다.

서울캠퍼스와 용인 캠퍼스 발전개념의 정립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내실화를 기반한다'는 의의 아래 외국어를 중심으로 서울은 인문·사회과학, 용인은 지역특성연구와 자연과학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캠퍼스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교통의 불편해소, 상수도·오수처리장 설치, 제 2기숙사·야외무대 설립, 교수 순환근무·상주교수제 신설 등을 통해 종합대학으로서 설 수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학문연구의 비교우위성 창출

'연구역량·연구지원 하부구조의 확충'이란 두가지 축으로 중점 육성부분을 명시했다.

연구역량확충과 관련 △교수충원-보직교수의 감축, 신규교수 평가기준 강화 △교수업적 평가-총람, 교수평가제 도입 △연구비 증액 및 교수연구년제 도입 등을 내세우고 연구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실 확충, 연구지원 확대, 출판기능 강화, 도서관 기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서울캠퍼스에 2개의 다목적 연구동을 짓고 출판부의 자체기능 활성화로 교양도서, 학술총서, 교재 발행에 주력한다. 또한 도서관 전산화를 시도해 학술정보 중추기관으로 발전을 유도하며 대학업무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업무자동화에 이바지 한다.

외대교육의 질적 우수성과 특수성의 추구

대학교육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교과과정 재편과 교육시설·기자재·실습장 확충, 대학원 기능강화, 학사관리제도의 개혁 등을 내용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한다.

올해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부분개편된 내용으로 외국어교육의 질적 향상, 교양과정 재편, 교수강의 평가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과정 재편은 '교과과정의 탄력적 운영과 수업방법의 질적향상'을 기본으로 한다.

본교생이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교육시설부분은 △시청각 교육원 시설 확충 △자연과학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사범대학 교육실습장 확보 등을 내용으로 기자재 미련에 전력한다.

학술활동의 국제화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학술활동의 국제화를 추구한다는 취지아래 학점교환제도 확대, 교수교환제도 마련, 연수교육의 강화, 통·번역사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외국어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육원과의 통합을 시도하며 연수원에 지역학연수기능을 추구하고 흑자운영을 유도한다.

학생후생복지와 교육환경개선의 증진

학생취업정보센터의 상설운영, 학생자치활동의 건전화 유도, 장학금 수혜폭 확대, 학생상담·지도체제 확대, 대학교육환경 일신 등을 내용으로 학생지도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환경새신 일환으로 다목적 연구동과 통역대학원의 신축으로 생기게 되는 공간을 학생복지시설로 운영하며 학생식당을 개선하고 세계각국과의 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 용인캠퍼스의 환경과 관련, 체육관, 다목적 식당, 고시반의 시설개선, 신강의동의 신축등을 마련한다.

대학행정의 효율화

'누수행정'이란 불명예를 퇴치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재편과, 조직의 일원화와 분권화기능을 구분하여 2천년대 대학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목표아래 연구협력처, 기획조정처, 홍보실의 기능을 확대하며 기획조정처에 각부처의 업무를 평가·감사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대학발전의 재원의 확보

대학재정확보와 효율적 예산운영의 추진을 기본으로 △외대발전위원회 설치 △재단전입금 확대 △기부모금운동 체계화 △국고보조금 확충등을 추진한다. 예산운영은 장단기 예산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예산관리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내부감사제를 실시한다.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은 이렇듯 7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비둘기칠판

이문벌

□알립니다

- 수화기초반을 엽니다.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대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때 : 16일(월)부터
  매주 월, 화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곳 : 인문과학과 405호
  연락처:012-330-1316 (이란어과 94 고주영)
  742-4567, 766-0947
  수강료는 없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동아리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 사범대 정기학생총회가 있습니다.
  때 : 17일(화)
  곳 : 대학원 210호

〈12대 사범대 학생회〉

- 제 20차 모의 UN총회가 열립니다.
  때 : 21일(토) 2시
  곳 :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4층)
  주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재편

〈모의 국제연합〉

- FBS TV방송이 시작됩니다.
  16일부터 낮 12시 20분 부터-5시 35분까지 30분간 학생식당에서 방송됩니다.

〈FBS〉

- 창작시 모임 회원 모집합니다.
  대상:시창작 경험있는 고학년생
  방법:시 5편 이상 제출
  연락처:012-919-7040
  상상력의 신도들을 찾습니다.

- 중국어과 학우여러분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보입시다.
  부담한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한 민주납부!
  우리 400학우의 힘이 모인다면 실핏나는 외대는 꿈이 아닙니다.

〈제 8대 통일중국어과 학생회〉

□환영합니다

- 연대항쟁을 힘있게 사수하고, 옥고로서 투쟁의 결의를 다진 이문회(장책.신방 4)군이 우리 품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총학생회〉

왕산골

□알립니다

- 기초수화반 개강해요
  수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손말에서 수화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매주 화, 목요일 제 11기 수화기초반을 엽니다.많이 와주세요.
  때 : 5시 30분
  곳 : 산업공학관 108호

〈손말〉

- 012, 015삐삐 엄청 싸게 팔아요!

〈복지관 전자부〉

- 한용고 동문회 합니다.
  때 : 20일(금) 5시 30분
  곳 : 학생회관 등나무
  전원참석, 불참=죽음

〈한영고 동문회〉

- 매주 목요일 5시 30분 후생관 4층 소극장실에서 정기예배가 있습니다 .

〈한사랑 선교회〉

- 취업설명회
  회사명:농어촌 진흥공사
  때 : 16일(월) 2시부터 5시까지
  곳 : 도서관 3층 세미나실
  내용: 일반 공사현황 인사 및 후생복지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각 단대학생회 2학기 출항

정기총회 · 단학대회 열려

자연대

자연대 정기학생총회가 오는 18일(수) 오후 4시 자연대 앞마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학기 사업평가 △1학기 결산보고 △2학기 사업계획 △현재 진행중인 학원자주화사업 보고 △공안탄압과 관련된 상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학기 사업 목표에 대해 학생회장 김홍철(물리 3)군은 '1차적으로는 과학생회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산업공과대

정보산업공과대학(공대) 학생회는 한살박이 공대체전 및 정기학생총회를 내일(17일)과 18일(수) 개최한다.

체전은 축구·농구·배구·계주·박터트리기·여자 발야구 등의 다양한 종목으로 대운동장에서 이뤄지며 폐막식 전에 정기학생총회가 진행된다.

정기학생총회에서는 '700 공대 학생들에게 공대 학생회의 입지를 강화하자'는 목표아래 △2학기 사업 계획 △세민전 △학원자주화사업 등이 보고된다.

이번 행사에 대해 학생회장 문진석(컴퓨터공학 3)군은 "공대가 올해 처음 생겨 학생회 모습을 갖추느라 1학기에 해야 할 체전을 이제야 하게 됐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과학생회를 튼튼히 묶어 학생회를 강화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아리연합회

96학년도 2학기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지난 11(수)일 늦은 5시 대학원 210호실에서 열렸다.

72개 동아리 중 45명의 동아리 대표가 참석한 이번 대표회의는 보고 안건으로 △방중 사업보고 △2학기 사업계획보고 △집행부 소개가 있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기획부장 문무승(SIANT 94), 사무국장 박미연(민미연 94), 선전국장 변혜님(ALA 95), 편집국장 장석원 (환경문제연구회 95), 사무국원 서법군(역연 95), 선전국원 박은영(로타렉트 96) 등이다.

사범대

사범대 학생대표자 회의(사학대회)가 지난 10일(화) 시청각교육원 201호에서 열렸다.

△1학기 사업평가 △행사일정 공유 △2학기 정세 분석 등을 안건으로 시작한 사학대회는 3차교육개혁안에 따른 사범대 통폐합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교육동이 모집 △사범대 발전추진위원회 구성등이 보충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이동원(2)군은 "사범대 통폐합 반대와 노사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했다"며 "많은 학생들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방송국 TV 방송 개시

예산부족, 사비 · 장학금으로 마련

서울캠퍼스 외대교육방송국은 오늘(16일)부터 TV 시험방송을 학생식당에서 시작한다.

방송은 종합뉴스, 인물탐방, 여행, 토론, 취업정보, 뮤직비디오, 영화 등을 내용으로 오후 12시부터 45분간, 5시 35분부터 25분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5년전부터 TV방송을 추진해 왔으나 방송국은 학교측의 무성의함과 기자재 예산부족으로 인해 번번히 좌절됐다. 이번 TV 시험방송도 역시 학교측의 지원이 없어 방송국 기자들의 사비와 장학금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방송을 준비한 외대교육방송국 실무국장 박유준(사범·한교 3)군은 "91년부터 추진한 TV방송은 오디오 방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좀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시작했다"며 "예산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용인, 제5차 확대운위 개최

2학기 사업계획 등 보고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제5차 확대운영위원회의가 지난 9일(월) 정족수 61명중 38명의 참석으로 열렸다.

총학생회 조직정책위원 민정원(인문·언어 4)양의 '과개강사업'에 대한 교양으로 시작한 이날은 △'공안탄압분쇄와 학생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업 보고 △2학기 사업계획 토론 △14일(토) '한총련 강경진압 및 공안탄압 비상대책위원회 국민대회' 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학기 사업부분에서는 학생회 4대 목표로 △7천 학생의 주인의식·공동체의식 강화 △학생회 사수·학생자치권 수호 △전체 간부의 혁신 운동 △학원자주화 승리·세민전 성공개최 등이 발표됐다.

또한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 준비위원장 문석규(동학·인도어 4)군의 세민전준비 상황보고와 △교육재정확보투쟁 △학부제 투쟁 △체육관 건립투쟁을 중심으로 한 2학기 학원자주화투쟁 보고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확대운영위 간부들간의 친목도모와 힘찬 2학기 사업 결의를 위한 뒷풀이가 진행됐다.

대학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현 암스테르담 시장 정치학 박사

대학원에서는 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인 Schelto Patijn씨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번 수여식은 오는 20(금)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대학원 건물 104호이다.

서사협 하반기 대의원회의

사범대 통폐합 반대투쟁 논의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하반기 대의원대회가 지난 13(금) 14(토) 양 일간 본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상반기 총노선 사업 평가 △하반기 총노선 수립으로 나뉘지며, 하반기 총노선은 △교육개혁 전반에 대한 투쟁 △교육법 개정 투쟁 △교육법 개정 투쟁 △조직강화 등이다. 특히 최근의 3차 교육개혁안에 따른 사범대 통폐합 반대 투쟁도 주요 안건이었다.

11회 남녀배구대회 오늘 개막

외대인 결속의 장 될 터

서울캠퍼스 제 11회 교내 남여배구대회가 오늘(16일)부터 20일(금)까지 '지성·정열·도전·원칙'이란 이념아래 대운동장에서 치러진다.

본교 총동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자 25개팀, 여자 20개팀의 사상 최다팀이 참가한다.

이와 관련, 행사 진행위원이자 배구부 회장인 장호성(상경·무역 2)군은 "작은 배구공을 통해 침체기에 있는 대학문화를 활성화하고 외대인 전체를 결속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바램을 밝혔다.

결승전과 3·4위전은 마지막날 열린다.

지난 13일(금) 명수당에서 '구속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200여명의 학생과 구속학생 부모님들이 함께한 이 행사는 구속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을 확인하고 계속되는 공안탄압 저지를 결의하였다.

김학영 기자

대학단신

동연, 대표자 수련회 다녀와

용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은 지난 13일(금)·14일(토) 양일간 남촌으로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를 다녀왔다.

약 70여명의 동아리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1학기 사업평가 △2학기 사업계획 △신규동아리(인사이덕스·심경과 과학·택견·스키·축구부·CBA)인준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공안탄압 속에서 학생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수련회의 의의에 대해 동연 학생회장 정래춘(서학·노어 4)군은 "동아리 분과별로 묶어내는데 주력했고 이후 학원자주화투쟁의 결의들을 높여냈다"고 평가했다.

고 김용덕 추모제 열려

93년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에서 익사한 김용덕(서학·노어)군의 3주기 추모제가 사월문학반이 주최하고 왕산 총동문회·동아리연합회·총학생회가 주관한 가운데 60여명의 참석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김군의 약력소개와 추모사·추모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군은 89년도에 입학하여 사월문학반 회장, 학원문화예술 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외대문학상·외문문학상 시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 행사와 관련 유상도(서학·독일어 3)군은 "용덕선배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서 살아있는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용덕형을 기리는 시비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 수족침 공개강좌

용인캠퍼스 온누리 수족침은 오는 19일(목)·20일(금)부터 매주 목·금마다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주 19일에는 동의학, 20일에는 기본음양 5행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강좌와 관련 회장 오영찬(공대·전자공학과 2)군은 "7천 학생들에게 한방의학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열게 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바램을 밝혔다.

자대, 체육관설립을 위한 족구대회

체육관 건립을 위한 자연인 족구대회가 지난 13일(금) 자연대 앞마당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의 우승은 물리학과가, 준우승은 환경학과가 차지했고 상품으로는 도서상품권, 식권카드가 각각 수여됐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열쇠고리와 축구공이 기념품으로 주어졌다.

자연대 학생회장 김홍철(물리 3)군은 "지금이 학원자주화투쟁의 중점시기인 만큼 체육을 통해 몸으로 부딪치면서 체육관건립의 절실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구속자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96 한총련 연세대 통일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이 학생들의 따뜻한 관심속에 열렸다.

○… 지난 9일(월) 노어과 학생회는 서양학대 학생회장 강석헌(노어 4)군의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어문관 로비에서 진행했다.

현재 서양학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창섭(이태리어 3)군은 "이날은 석헌이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 정보통신학과 학생회장 배현석(2)군의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이 지난 13일(금) 공과대 건물 로비에서 정보통신학과 주최하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를 준비한 은윤성(2)군은 "현석이가 없는 자리가 너무 크다"라며 "현석이를 석방시키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672호 교수 신규임용 기사중 39명을 26명으로, 박중찬 교수를 '미생물학과'로 바로잡습니다.

□연대사태로 구속된 배현석군의 아버지를 만나

이 사 람

"다시는 내아들 같은 희생양이 없어야죠"

"처음 구속 소식을 들었을때 학생들이 통일을 부르짖는다고 이뤄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연대사태후 구속된 배현석(정보통신 2)군의 아버지인 배형암씨는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용인캠퍼스에서 열렸던 '구속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 참가한 그는 "우리 자식을 위해 쌀팔한 밤까지 함께 해준 학생들이 참 고맙고, 내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랐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계속 허탈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답했던 그는 배군의 안부를 묻자 "건강하다"며 잠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담배를 피면서 그는 "기성세대로서 학생만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참피합니다. 현 정권은 정권유지를 빌미로 결과적으로는 통일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며 연대 사태후에 바뀐 학생운동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현석이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오히려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로서의 항변이기도 했다. 그는 독일의 한 철학자의 말 '꼭 통일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를 자주 인용하며 학생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옆에서 경청하던 그의 부인 정경심씨도 "학생은 약자고 어른은 강자죠. 결국 다치는 건 학생일 뿐이에요. 통일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주장하면 더 이상 피해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라며 학생들을 우려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아들이 희생양이라면 이번 사태에서 죽음을 당한 김이경 전경도 독같은 경우라며 애도했다.

인터뷰 중간 중간마다 재 2의 연대사태 발생을 걱정하는 배씨의 모습에서 자식의 안위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전형적인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석방요구 집회로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시 후원의 밤 행사를 이끌고 참가한 학생들에게 감사했다. "내 아들과 같은 희생양이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고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시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김학영 기자

'96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96년도 우리대학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빠짐없이 출석하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교육일정
   1996.10. 8(화) : 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포르투갈어과, 이태리어과
   10. 9(수) : 폴란드어과, 루마니어과, 체코어과, 항가리어과, 유고어과, 경상대학
   10.10(목) : 동양학대학, 인문대학
   10.11(금) : 자연과학대학, 정보산업공과대학
2. 교육장소
   보병 제 5171부대 3대대(용인시 운학동 예비군 교장)
3. 교육비대상자
   가) '96년도 전역한 예비군
   나) 지역에서 8시간이상 교육이수자
   다) 전역 6년차 이상자
4. 교통편
   가) 서울 거주자 - 잠실에서 07시 출발 (종합운동장내 주차장, 종합운동장 전철역 근처)
   나) 성남, 모현거주자 및 모현학사생 - 학교에서 08시 출발 (학생회관 앞)
5. 유의사항
   가) 훈련통지서는 공고로 대신함(학보게재 및 학과게시판 참조)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가지)반드시 지참
   다) 군모, 군복, 군화, 고무줄 반드시 착용(복장위반자 귀가 조치)
   라) 지각하지 말것(개인 입소자는 08:50까지 도착)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캠퍼스 비상계획관실로 문의바람

※ 전화 : (0355)30-4111, 4119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졸업 사진 추가촬영

'97년도 2월/8월 졸업예정자를 위한 졸업앨범 추가촬영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촬영자와 재촬영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 내에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	왕산
기 간		9.18(수) ~20(금)	9.30(월) ~10.1(화)
장소	졸업앨범 개인 상반신 사진 개인 비디오 촬영	상징탑 (학생회관)	명수당
	학사모 확대 사진	전시실 (식당옆)	감골 스튜디오 TEL 268-5890
	취업 사진 원하는 사람 한해 7,000원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졸업준비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

• 이문 02-961-4410
• 왕산 0355-30-4158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

'96, 제2학기「조기졸업대상자」신청자 접수

'96학년도 제2학기「조기졸업대상자」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는 기간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96. 9. 18(수) 까지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3. 신청자격 및 기타사항
   가. 신청자격 : 제1,2학년 과정을 최대이수학점까지 모두 이수한 자.
   나. 신청학점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1개학기라도 3.75미만인 자는 조기졸업 신청자격이 없음〉
   다. 수강신청 :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 대학의 최대이수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제3학년 1학기부터 수강 이수〉
   라. 탈락자 사항 : 조기졸업 중도 탈락자(자격상실)는 8학기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종전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제8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4. 참고사항 :「조기졸업제 운영규정」「강의시간표 수강신청 지침」

서울·용인캠퍼스 교무처장

1997학년도

통역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00명
2. 모집학과
   가. 한국어번역·통역부(2년제) : 한영과, 한불과, 한독과, 한노과, 한서과, 한중과, 한일과, 한아과
   나. 외국어번역·통역부(3년제) :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3. 시험과목
   가. 1차시험 : 공통영어, 전공외국어
   나. 2차시험 : 한국어, 전공외국어 번역작문, 구술시험
4. 원서교부 : '96. 10. 7(월) -10. 23(수) 17:00 까지

통역대학원 설명회 : '96. 10. 7(월) 14:00 대강당

5. 접 수 : '96. 10. 16(수) -10. 23(수) 17:00 까지
6. 시험일시 : '96. 11. 2(토) 10:00 부터

※ 본 대학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전문통역사와 타국적 국제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번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실립된 전문 교육 기관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TEL. 961-4406, 963-0558, 961-4112~3

통 역 대 학 원

신 간 안 내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ISBN 89-7464-176-7 03300)

저 자 : 임영상, 황영삼 공편
면 수 : 436면 신국판
정 가 : 9,500원
펴낸곳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 화 : 961-4143, 961-4248
팩 스 : 962-7122

구 소련은 혁명이나 내란에 의해 해체된 것이 아니다. 병리현상이 깊어만 갔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고르바초프가 생존을 위해 주도한 공식적 개방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그동안 러시아 정책에 억눌렸던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와 종교간의 갈등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스스로 붕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는 정교, 카톨릭, 우니아트 및 이슬람 등으로 다양하고 민족 경계선과 종교 경계선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이 책에서는 민족문제를 종교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편집자 주-

냉전시대의 상징, 베를린을 다녀와서

쉼표가 없는 완전한 통일로

5일간의 유럽 여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독일, 그중에서도 베를린. 아직도 공산국가였던 동독의 후유증과 서독의 자본주의 풍요가 공존하는 곳, 베를린은 나에게 있어서 무척 흥미를 끄는 도시 중의 하나였다. 어쩌면 내가 여행의 출발점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베를린으로 선택한 이유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약간이나마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베를린 테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김포공항과는 달리 한가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숙소로 가는 길목에서 나는 많은 건물들이 낙서로 덮혀진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은 무척 깨끗하리라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첫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통일의 상징이 되어버린 브란덴브르크 문으로 갔다.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의 시작과 끝 지점으로 온 세계의 시선을 모았던 프러시아 시대의 개선문이다. 주위에 있던 장벽은 모두 철거가 되어 차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문앞은 붐볐다. 나는 문 중앙에 서서 통일 당시의 독일인들의 기분을 잠시나마 느끼려고 했다.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있던 자리를 가보았다. 찰리 검문소라 불리우는 지금의 이자리는 건물의 증축공사와 도로공사가 한창이었다. 근처에는 이 국경 검문소에서 탈출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사건사진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었다.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다 사살되는 장면 및 버스로 탈출을 시도하다 발집이 돼버린 버스, 특히 탈출하다 총을 맞고 쓰러지는 어린 학생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자유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급한 통일 정책의 결과로 서베를린은 많은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주민들의 괴리감을 또한 야기시켰다. 숙소에서 만났던 한 학생은 독일정부가 대학등록금 징수안을 통과시키려는데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무료교육을 받아오던 그들로서는 이 모든 책임을 동독 주민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 친구가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히 남아있다. "동독인들은 서독지역 주민들이 이뤄놓은 것을 아무런 댓가없이 받으려 할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서독 지역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한다." 이말은 어쩌면 앞으로 있을 통일조국에 대한 예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동포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귀국하기 전에는 복지 기금 감축에 대한 독일주민들의 데모가 있었다.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그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아보였다.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그전에 앞서 통일에 대한 대비책과 동포를 사랑하는 동포애를 먼저 길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쪽에선 최신형 벤츠를 운전하고 다른 한쪽에선 구형 동독제 차를 운전한다. 그들은 과연 통일을 행복해 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어쨌든 그들은 베를린을 유럽기지로 만들려고 한참 노력 중이라 한다. 지정학적으로-나는 잘 모르지만-베를린은 유럽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 베를린, 그들은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조 성 완
〈서학 · 독일 1〉

펼어놓으세요

채워주세요

본보 문화부에서는 12면을 채워줄 참신한 장르의 글과 작품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실렸던 시, 영화평, 서평, 여행기 등의 장르 뿐만 아니라
단편 소설, 꽁트, 수필, 만화, 서예작품, 판화작품, 창작광고 등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글과 작품들을 원합니다.
12면 문예면은 여러분들의 면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채우십시오.

서평 - 인간의 시간

자아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

'인간의 시간'은 90년도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가 발표된 후 6년의 휴면기 - 참작하고 있지 않을 때 더 치열한 참작을 하고 있는 - 에서 깨어나 발표되었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도 삼투되어 있어 '동트는 - '의 화염 같은 그러나 동트는 청신함을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즙액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쥐여 짜내었던 외적 치열함이 '인간의 시간'에서는 내적 치열함으로 환원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인식을 재무장하고 더 깊이 심입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시간'의 내용은 현실인식의 심화와 확대, 사유의 깊이 추구, 시인의 정체성에 대한 절박한 재탐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야를 확장하여 계속 씨워야 할 역사 진실성 발현과 노동가치의 사회적 외화까지도 반영해 내고 있다.

시인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나무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 진한 수액을 건져 올리면서 / 자신이 거쳐온, 모든 위기의 시대가 가져다 준 / 상처와 투쟁과 염광을 아우르며 / 스스로 자신을 태울 불길을 준비하며 / 나무는 그렇게 겨울 들판에 서 있다."

'위기를 먹고 크는 나무'와 같이 여전히 겨울이고, 시인은 겨울나무가 되어 자신과 타인, 이상과 현실의 '간격 좁히기'를 위한 끝없는 투쟁의 산물이 봄나무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대륙붕에 뿌리를 내리며 / 희미해진 태양빛은 땅깊이 저장하기 위해 /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싸움'('위기를 먹고 크는 나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겨울에서 '오랫동안 캄캄한 산길'('달')에 있더라도, '삶의 의문이 삶보다 깊어지'('붉은 웃음 하나')더라도 시인은 '언제나 날고 언제나 둥지를 틀 수 있는'('부리가 붉은 새' 자유를 얻기 위해 '깊 없는 길'('슬픔의 맞불')을 찾아 담담하게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다.

'꿈꾸어 온 만큼 철저하게 / 깨어진 희망만큼 철저하게 / 배신의 노동 굴욕을 감요당해 왔던 것만큼 / 철저하게 싸우며'('강렬') '쉼없이 나아가 꽃을 피'('연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시간'에서 두드러진 점은 외면적 치열함의 표면적인 층차에서 시인의 사유 마디마디를 치고 나가는 깊이에 대한 열정과 반성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람들 불길 속으로 불빛 속으로'('다시 공구를 잡고') 가기 위해서 모든 시작을 다시 원점으로 놓고 책임감을 자기 안에 상정하면서 자신을 추스르고 있다.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야 하는 / 이유 또한 여기 있다 / 우리가 온몸으로 거부해야 할 것은 / 내 안에도 있다 항시 있다 / 더 이상 밖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 이 손바닥 위에도 있다"('모든 것이 전부인 이유')에서 처럼 시인은 파편화되고 진정한 승리로 조합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전망을 '영원의 조각도 영원이다'('숲으로 간다'라는 화두로써 대신하고 있다.

자신의 외침에 선명한 메아리를 되돌려 주지 않는 사회현실 그러나 시인은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나 모두를 부르는 / 모두를 부르나 꼭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닭울음소리') 아직까지도 진정으로 솟아오르지 못했던 미포만의 일출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태양과 함께 모두의 메아리가 미포만 아니 온 겨레에 가득하기를 희망하면서.

'인간의 시간'에서는 또 시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꽃튀는 고민이 있다.

감물처럼 자연의 관심에 의해 순탄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아닌 '단절의 꿈'('인간의 시간')을 역사의 추동력으로 치환시켜 역사의 톱니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밀려드는 / 진흙탕과 쓰레기와 함께 파리가 끓는 자리에 / 눈물과 피와 좌절의 구역질나는 골짜기에 강한 눈빛 하나 피"('연꽃')을고 있는 시인은 자신에게 '스스로 산화하는 불길인 줄 모르는 자가 / 어찌 지리 티없이 맑게 타는 별빛에 그리움을 담겠는가'('모두가 불꽃이다')라는 질문을 던지며 언젠가는 역사를 추동해갈 시인과 모든 사람들의 톱니바퀴가 한데 어우러져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날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시간'이 '동트는 - '보다 다소 관념적인 것은 사유의 즙액을 표현하는 방법론적인 현상일 뿐 시인이 뿌린 씨앗은 독자들 지마다의 겨울토양에 싹을 틔웠을 때는 구체적 형상으로써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봄나무로 자랄 것이다.

박 정 원
〈대학원 중국어과 석사 5학기, 외대문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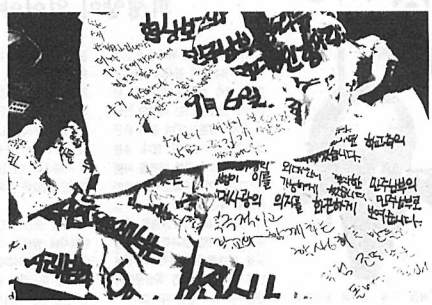


사진 수필

저는 학생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들어들어라고요. 요즘 세상에 자신의 앞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가니까요. 저는 타 대학이 부럽지 않습니다. 외대도 좋아지고 즐거워 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희망만으로 바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없이 가난하다는 재단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닌 선배님과 함께 7300의 힘을 모아 열어가야 한다고요.

- 훼은 대자보 내용에 대한 상대 96학번의 반박의 글 중에서 -

전대기련 공동광고

조선일보를 안보면 세상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온 국민은 KBS에서 가장 저급한 정보를 얻습니다
오늘의 왜곡 내일의 절망 MBC
YS에게 기쁨 주고 국민에게 눈총받는 SBS
왜곡을 대표하는 신문 동아일보
왜곡의 깊이가 다릅니다 중앙일보
확실히 치우치는 신문 한국일보
광고없는 1면 진실없는 전면 경향신문

정권보다 강경하고 국민보다 먼저흥분

언론은 '김일성부자의 최파이프 특공대', '도시개월파' 등 열거할 수 조차 없는 선동적인 언어로 학생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그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목청높인 언론은 자신이 대한민국 참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왜'가 빠진 4W1H 기사

'왜' 학생들은 경부의 원천봉쇄에도 통일대축전을 개최하려 했는지, '왜' 시위가 과격해졌는지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언론.
그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왜? 이유는 없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학언론탄압관련

전국 2천기자들이 학우들에게드리는 글

최근 대학신문에 대한 이례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신문들이 학교당국으로부터 제작중지 혹은 배포금지를 당하고 기사가 삭제되는 등 군사정권 하에서나 있음직한 언론대탄압을 겪고있습니다. 또한 김영삼정권은 90여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문사까지 침탈, 많은 자료와 컴퓨터 하드를 압수해가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9월 6일) 김활은 "대학신문을 수거해 이적성여부를 검토하고 이적성이 발견된 대학신문의 편집장을 비롯한 지도학생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대학신문과 교지편집장들이 기사게재로 구속되던 80년대의 반면주적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한 제도언론의 보도는 왜곡편파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행사의 취지나 내용, 대회가 폭력을 동반하게 된 원인은 일축하고 학생들을 '북의 행동대원' '주사파의 난동' 등으로 몰아부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사실보도조차 하지 못했던 제도언론과 달리 진실한 보도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바로 대학신문을 비롯한 대학언론이었습니다. 제도언론 비평, 이학생 실추행 사건, 심지어 이 사태와 관련해 기사한줄 나올 수 없었던 대학신문도 있습니다. 마찰이 있었으나 주간교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된 대학을 제외하고 신문발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학교만도 30여개에 이릅니다.

대학신문마저 정권의 손에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정론을 지키려는 선배 언론일꾼들의 부수한 노력끝에 제한적이지만 언어면 자유의 시계바늘을 또다시 군사정권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독자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국 124개 대학의 대학신문사(학보사) 기자들은 이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대학신문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언탄압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9월 6일 성명서 중에서